

2021 04 Vol. 370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부 활



바람과 하늘과 산이 늘 곁에 있지만
시간을 잊고 사는 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문이 닫힌다.
찾아올 누구도 없고
해가 뜨면 머뭇거리는 고독한 그림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요한 13,38)

몸도 마음도 내놓지 못하는 후회
걸어가 마주하지 못하는 슬픈 시선
그럼에도 지친 내 두 발을 팽팽하게 밀어 올리시며
깊고 어두운 땅에서 싹트는 힘을 내어 주신다.
부끄러운 세상 몸들을 떠받들어 주신 당신 목숨은
생명이며 부활이었다.

CONTENTS

- 02 갤러리 / 김영문(브루노) 신부
부활
- 03 차례
- 04 강론 / 강민기(세라피노) 신부
하느님 나라의 가치
- 06 편지 / 가르멜 관구 재속회 옮김
성요셉, 가르멜의 수호자(2)
- 09 웅달샘 /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영적 어린이의 길
- 10 영성 / 신호준(마리오) 신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2)
- 15 수도회 역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51)
- 19 어두운 밤 연구 / 서한규(시몬) 옮김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20)
- 22 영혼의 성 연구 / 서한규(시몬) 옮김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4)
- 26 자서전 연구 / 윤주현(베네딕토)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25)
- 29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와 해설 / 김석영(요셉) 수사
님의 아름다움
- 30 선교 / 김석영(요셉) 수사
선교사의 사랑
- 34 마음의 샘
- 35 공동체 이야기 / 수원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
- 38 성소 / 김종선(즈카르야) 신부
모든 재속회원분들께
- 40 묵상 / 윤원조(리드비나)
Homeless Jesus
- 42 회원의 글 / 박계용(도미니카)
사무치는 아픔, 사무치는 사랑
- 44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박지현(요셉피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47 독자후기 / 정현숙(클라우디아)
추모글을 읽고
- 48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25)
2021년 6월 영적나눔
- 50 비둘기
- 52 그림단상
- 표지그림**
부활(윤정순 예수의 글라라) 作

* 강론 *

하느님 나라의 가치

강민기(예수성심의 세라피노) 신부/ 가르멜 관구본부 수도원

I have seen the Lord!
나는 주님을 보았네. (요한 20장 18절)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을 보고 한 말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현재완료 형태를 취합니다.
현재완료형이란 다 아시듯이,
그 당시의 사건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그 때 예수님을 보았고
또한 지금도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수도회의 모토인
“나는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엘리아 성조의 말씀과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항상 우리 곁에 예수님을 모시고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슴에 불이 붙는 것,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뛰어 달려가며
그 분의 살아계심을 알림이 필요합니다.
삼의 증거,
곧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 증언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그분을 뵈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활은 보통
번데기가 나비로 변화하는 비유로
나타내곤 합니다.
사순절의 모습이 번데기였다면
부활의 모습은 나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모습 안에는
나비이기보다는
번데기의 모습이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외적인 시간은
사순에서 부활로 넘어갔지만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
부활로 넘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번데기 안에 갇혀있지는 않으니까?

어서 부활하여 꼬투리를 벗어버리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꼬투리를 벗어버리는 것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
내 옛 모습을 벗어 버려야합니다.

딱딱한 고치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무덤의 돌을
어떻게 굴러낼 수 있을까요?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안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돌은 저절로 굴러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항상 눈앞에 모시고
그분과 대화하며
현존의 삶을 살았던 라우렌시오 수사님
그분의 현의는 다름 아닌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매일 매일이 부활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매일이 부활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서약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은 어느 때 다가옵니까?
정결과 가난과 순명의 삶을 살 때,
매일의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결이란
형제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는 내 몸이다 하신 예수님처럼
형제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때입니다.

가난이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봉헌한 작은 빵을 통해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내가 형제들과 가진 것을 나눌 때
주님께서서는
모두 풍족하게 먹고도 넘치게 베풀어주십니다.

순명이란
내 뜻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내 뜻이 옳고 내 길이 더 바르게 보이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
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 판단과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전례적인 부활과 함께
일상에서의 부활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 편지 *

성 요셉, 가르멜의 수호자(2)

성 요셉이 세계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된 지 150 주년을 기념하며
원 가르멜 수도회 총장과 맨발 가르멜 수도회 총장이
가르멜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미셸 오 네일 신부. O.Carm./ 원 가르멜 수도회 총장
사베리오 카니스트라 신부. O.C.D./ 맨발 가르멜 수도회 총장

성 요셉의 보호

데레사의 독특한 생각 중 하나는 다른 성인들은 우리에게 특정 분야의 도움만을 주시도록 하느님으로부터 위임 받았는데, 요셉 성인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물질적이거나 영적이거나 모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자서전 6,6) 수호자 성 요셉 축일은 전형적인 가르멜적 방식으로 이러한 확신에 기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1628년에 스페인 맨발 가르멜 수도회는 총회의 중간 회기(the intermediate General Chapter)에서 성 요셉을 맨발 가르멜회의 주보 성인(principal patron)으로 선언했습니다. 수호자 성 요셉 축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맨발 가르멜 회원 후안 드 라 콘셉시온(Juan de la Concepción)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는 카탈루냐 관구의 최초의 관구장이었고 이후 스페인 가르멜회(the Spanish Congregation)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1679년 총회에서 수호자 성 요셉 축일을 승인받았고, 전례문은 카탈루냐의 같은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회원인 성 요셉의 후안(Juan de San José 1642-1718)이 작성하였습니다. 추기경 카사나테(Card. Casanate)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후 예부성성(The Congregation of Rites 경신성의 전신)에서 1680년 4월 6일에 승인하였습니다. 성 요셉을 수호자로 기리는 축일은 부활 제 3

주일로 정해졌는데, 보통 이날에 총회나 관구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원 가르멜(the Ancient Observance)회원들은 이 축일을 채택한 후 '임종하는 사람들의 수호자이시며 우리 수도회의 보호자이고 수호자이신 성 요셉(De Patrocinio S. Joseph Confessoris, Protectoris, et Patroni nostrae Religionis)'으로 기념했습니다.¹⁾ 이미 오랫동안 요셉 성인을 지칭할 때 보호자와 수호자라는 용어는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분이 보편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될 때까지 이 축일을 기념하는 수도회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성 요셉을 가르멜회의 수호자로 선포하거나 전례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큰 시련이자 고난이었는데, 수도회의 내부 문제도 원인이 되었고 그 시대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 종교적으로 적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르멜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힘들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가르멜 수도회 안에서 행해진 개선 운동의 부분으로서 성 요셉 신심에 대한 작품들이 급증하고 있었는데, 이는 신앙을 표현한 독특한 양식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영성 생활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을 전파하고 그분의 보호를 일깨우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던 가

1) See, for example: *Missale Fratrum Ordinis Beatissimae Virginis Mariae de Monte Carmelo*, Roma 1759, 350.

르멜회 작가들과 설교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1723년 '성 요셉의 역사 (*Istoria di San Giuseppe*)'를 저술한 라파엘 일바바로(Raffaele il Bavaro)는 예수와 마리아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그 두 분이 사랑하신 요셉 성인도 역시 사랑하라고 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²⁾ 주세페 마리아 사르디(Giuseppe Maria Sardi)는 수도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신앙) 선조들과 그분을 거룩함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수호자 성 요셉을 널리 알린 위대한 전파자로 간주됩니다.³⁾ 요셉이 가르멜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스승으로 알려지신 것과?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나 길을 잃은 사람들의 보호자이자 후원자로 선택된 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1847년 9월 10일, 교황 비오 9세는 예부성성(the Congregation for Rites)에서 위대한 가장 성 요셉 (*Inclutus Patriarcha Joseph*)을 선언하게 하시고, 대혼란기에 수호자 성 요셉 축일을 전 세계 교회로 확장하여서 부활 제 3주일에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가르멜회에서 당시에 사용되었던 전례문들이 조금 수정되어서 미사 전례와 성무일도의 내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일은 교황 비오 9세께서 성 요셉을 공경하여 행하신 첫 번째 활동이었는데, 교황님은 즉위하신 지 아직 1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던 시기에 교황님은 요셉 성인에 대한 공경을 더욱 확산시켜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는 특히 그분을 보편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정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1870년 9월 공의회가 예기치 않게 중단되어서 이 요구를 실행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2월 8일에 교황 비오 9세는 경신성(예부성)을 통하여 교령 '하느님께서서는 같은 방식으로' (*Quemadmodum Deus*)를 장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수호자이신 성 요셉 축일은 1913년에 부활 제 3주 수요일로 이동되었고, 1956년에는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로 대체되어 5월 1일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맨발 가르멜회는 1957년에 수도회의 고유 전례력을 승인 받아서 "우리 회의 보호자이며 수호자"로서 수호자 성 요셉 축일을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성 요셉, 전 세계 가르멜의 보호자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르는 전례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전례력을 획기적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1969년 2월 14일에 승인된 교회력에는 성 요셉 대축일에서 '보편 교회의 수호자'란 칭호가 사라지고 기념일로 바뀌어 3월 19일로 이동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칭호를 폐기한 것은 아니고, 단지 성경에 나오는 칭호인 '동정 마리아의 배필'을 고수하면서 각 주교회의와 수도회 가족들에게 다른 칭호들을 덧붙일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고유(전례)력에 대한 경신성의 지침(1969년 6월 29일)에 따라서 맨발 가르멜회의 달력에서도 수호자 성 요셉의 대축일은 빠졌습니다. (맨발 가르멜회) 총평의회는 '우리 회의 보호자'란 칭호를 3월 19일 기념일에 붙이고 그날을 대축일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성 요셉의 선택 기념일을 전체 수도회에서 기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⁴⁾

2) RAFFAELE MARIA BAVARO, *Istoria di San Giuseppe*, Antonio Abri, Napoli, 1723, 612; *Vita di San Giuseppe o sia Ristretto della sua Istoria ed Esercizi di Devozione per fruttuosamente venerare il medesimo Santo...*, Antonio Abri, Napoli 1724.

3) GIUSEPPE MARIA SARDI (Veneto), 'Discorso sopra il Padrocinio di San Giuseppe Sposo di Maria', in *Sermoni*, Lorenzo Rivan Monti, Venezia 1742, 213-221.

4) 참조: 'Normae de calendario liturgico

이러한 결정들은 매우 빨리 잊혀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의 보호자”란 칭호가 원 가르멜회의 전례력에는 그대로 보존된 반면에 맨발 가르멜회 전례에서는 신속히 사라져서, 성 요셉의 대축일이나 기념일을 고유 전례력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티칸 공의회 후에도 양쪽 수도회의 회헌에서는 계속해서 성 요셉을 보호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O.C., 회헌 91 ; O.C.D., 회헌52). 이러한 사실로 우리는 가르멜 가족이 일치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와,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급급하기 보다는 복음의 진실을 참되게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체성(명확함)과 신비감”이 필요한 세상, 안정적인 관계와 서약의 결속을 피하고 무익한 자기애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세상에서 요셉은 극기와 일상의 책임, 가정을 보살피고 성장시키기 위해 조용히 헌신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모든 가정은 자기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수호자는 우리가 인류의 상처와 교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주기 위해 밤낮으로 자신을 잊고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도 없고 가르멜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결과를 바라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견디며

세상의 이목을 피하여 일합니다. 혹시 목적이 있다면 자기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에페 3,15) 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셉 성인이 자신들의 수호자이자 모범이 되시는 분, “자기들의 아버지이자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있을 때 말씀이 오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분의 내적 기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가르멜인은 꿈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꿈과 같고, 그 안에는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멜 공동체는 자신의 가정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예언자의 꿈을 꾸는 사람들, 날마다 구원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순명하셨고 봉사하기를 열망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오셨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린이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요셉 성인처럼 가르멜인들도 꿈을 알고, 희망의 불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불꽃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새 세상을 위하여 빛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성인은 가르멜을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적대적인 공격과 모든 곤경으로부터 가르멜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멜이 정체성의 단순함과 심오함을 굳건히 보존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로움으로 그분은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야 하고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 요셉에 대한 우리의 공경은 신심이나 덕의 실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계획서라서 가르멜의 카리스마적 유산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요셉은 복음의 아이콘으로서, 우리 가르

OCD pro anno 1970' (1969년 7. 18. 총평의회 128차 회기에서 승인됨), in *Ordo Divini Officii recitandi missaeque celebrandae iuxta calendarium romanum ac proprium Carmelitarum Discalceatorum [...] pro anno Domini 1970*, [Casa generalizia OCD] 1969, 29-32.

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아버지와 후견인으로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성실한 친구이자 믿을만한 안내자로 의지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세계가 계속해서 코로나 19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마음으로 의사들과 간호사들, 의료 연구원들, 그리

고 이 전염병에 희생되신 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으로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요셉 성인께서 우리 각자를 하느님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돌보아주시고 온 세상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멜의 형제로부터

* 응달샘 *

영적 어린이의 길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신부
인천 수도권

소화 데레사 성녀의 「영적 어린이의 길」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들의 사랑 속에서 자라신 성녀께서는, 어려서(네 살 반) 어머님을 여의신 후, 특히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으신 성녀께서는, 하느님께서 자기를 무한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으셨습니다. 따라서 성녀께서도 하느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셨고, 하느님께로 마음을 집중시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녀의 리지외 가르멜 수녀원 입회(1888. 4. 9)후, 성녀의 아버님(성 루이 마르팽)께서 뇌경색으로 정신 질환에 걸리시는 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신앙 안에서 이를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언니들에게 “이때야말로 우리가 성녀가 될 기회”라 하시면서 이 시련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녀의 서원식 날(1890. 9. 8) 사랑하는

아버님께서 예식에 참여하시기로 되어 있으셨지만. 끝내 못 오셨습니다. 성녀께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비로소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사랑하는 아버지마저도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께서는 심판 대전에 나아가실 때,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시면서 「빈손」으로 나아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녀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따로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사랑하시는 정배 예수님의 공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선행과 공로는, 하느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잘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점, 불완전투성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아빠 품에 안겨 가는 어린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시므로, 당신께 기대고 의탁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마태 18, 3-4) *

* 영성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2)

마리 보맹-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번역(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역/ 인천 수도원

1. 알랑송

레오니의 출생

캉(Caen)¹⁾의 수녀원에서 수도서원 했던 방문회 수녀인 레오니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보아야 하겠다. 레오니는 오른(Orne)의 주요 마을인 알랑송에서 1863년 6월 3일에 태어났다. 마르탱 부인이 세상을 떠났던 1877년에는 레오니와 아버지, 다른 네 명의 자매들이 리지외로 이사했다. 인상 깊었던 알랑송 관저 맞은편에 위치한 생-블레즈가의 작은 저택을 떠나서, 리지외 언덕에 자리한 훨씬 더 친근하면서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르 뷁소네를 향해 나아갔을 때, 레오니의 나이는 열 네 살이었다.

레오니는 알랑송의 풍뇌프 가에서 태어났다. 바로 그곳에서 마르탱씨가 1850년 11월에 27살의 나이로 시계제조업자이자 보석세공인으로서 점포를 개업했던 것이다. 두 명의 언니들인, 그 당시 세 살이었던 마리와 21개월이었던 폴린이 레오니(의 출생)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민하고 금발이며 파란 눈을 가진 레오니는, 활발한 성격에 머리색이 흑갈색인 언니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오니의 부모는 그녀의 허약한 건강상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레오니는 성체성

혈 축일이었던 출생일에 몬소(Monsort)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세례 받았다. 르부 신부가 다른 두 명의 언니들에게 세례 베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레오니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마르탱 가의 9명 자녀들, 곧 7명의 여자 아이와 2명의 남자 아이 모두 마리라는 세례명을 받았듯이, 레오니도 마리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그녀는 또한 대모이자 마르탱 부부의 친구인 티펜 부인을 따라 '레오니' 라는 이름을 받았다.

“어린 레오니는 허약하단다”

레오니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나서부터, 마르탱 부인이 남동생인 이시도르 게렝에게 자기 가족에 관해 편지를 써 보낼 적마다, 막내에 대한 소식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녀는 1864년 1월자 편지에 “어린 레오니는 허약하단다” 라고 적었다. 그 해 3월에 쓴 편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마르탱 부인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레오니는 (태어난 지) 아홉 달이나 되었는데, 자기 다리로 몸을 지탱할 수가 없단다. 마리는 석 달 만에 몸을 지탱할 수 있었는데 말이지. 그 가엾은 아기는 너무 약해. 기침하는 것이 만성이 되었단다. 하지만 폴린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나쁘지는 않아 다행스럽구나. 레오니가 그렇게 건강이 나빴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보내주시는 구나.”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서도, 레오니의

1)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역의 도시로서 리지외에서 서쪽으로 6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 (지난 달 회보에 Caen 지명을 '카엔'으로 잘못 표기한 것을 '캉'으로 바로잡습니다)

가연은 모친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다. “레오니는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단다. 걷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그 애에게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데, 너무 약하고 너무 작아. 그 애 이제 막 흉역에 걸렸단다. 아주 지독하게 걸려서, 여러 번 심한 경기까지 일으켰어.”

열심한 신자인 마르탱씨는 세(Sees)의 성모 성지로 도보 순례를 떠나서 허약한 막내딸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

마침내, 레오니는 한 살 반이 되었을 때 자기 혼자 힘으로 걸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고름 형태의 습진이 레오니의 작은 몸을 뒤덮었으며, 날마다 더 악화되었다. 의사는 레오니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의사가 처방했던 약이 레오니의 증상에 전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절망에 빠진 채로, 마르탱 부인은 자격을 갖춘 약사였던 남동생인 이시도르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제발 네 소견을 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렴. 아마 넌 효과 있는 처방을 할 수 있는 유명한 전문의를 알고 있겠지. 이런 상태에 있는 가연은 어린 딸을 바라보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넌 상상할 수 없을 거야. 난 그 애를 위해 9일 기도를 청하려고 엘리즈 언니에게 편지 쓰는 것을 방금 전에 끝마쳤단다.”

방문회 이모의 개입

엘리즈는 게렝 집안의 세 명의 자녀 중 맏이였다. 젤리²⁾는 두 살 반 어렸으며, 이시도르는 가족 중 막내로서 젤리보다 9살이나 어렸다. 마르탱 부인은 자기 언니와 아주 가까웠는데, 언니는 르망에 위치

2) 젤리 게렝(1831-1877년): 레오니 모친. 1858년 7월 13일에 루이 마르탱과 혼인하여 마르탱 부인으로 호칭. 2015년 10월 18일에 부부가 함께 시성되었음.

한 방문회 수녀원에 입회하여, 마리 도시페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입회한 해는 1858년으로서, 같은 해에 젤리는 루이 마르탱과 혼인했다. 엘리즈의 기도는 마르탱 가정에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왜냐하면 레오니의 건강이 빠르게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1865년 6월에 젤리는 남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레오니는 대담하고 상당히 강한 아이야. 한 가지는 확실하구나. 그 애는 엘리즈가 9월에 시복되신 마가렛 마리아 복녀에게 9일 기도를 바치고 나서부터는 아픈 적이 없단다. D. 부인이 찾아왔을 때, 레오니는 태어난 이후로 늘 그랬던 것처럼 가연은 상태에 있었지. 왜냐하면 그 애는 계속해서 심계 항진(心悸亢進)과 장염을 앓았었기 때문이야. 사실상, 16개월 동안이나 삶과 죽음 사이를 맴돌았었지. 그 당시에 난 그 애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것을 기억해. 하지만 9일 기도 이후로는 곧 바로, 그 애 마치 작은 토끼처럼 뛰어다녔단다.”

남동생에게 보낸 젤리의 편지들 중 어디에서도 레오니의 불안정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다. 레오니는 태어나서는 아주 빈약하게 자라났지만 마침내 2살 때 그러한 섭리 차원에서의 개입이 그녀를 구원하였던 것이다.

마르탱 가족이 성장하다

1864년 10월에, 사랑스러운 넷째 딸인 마리 헬렌이 마르탱 부부 사이에 태어났다. 어린 헬렌의 총명함과 온유함은 부모님과 언니들에게, 특히 곧바로 놀이친구가 된 레오니에게 기쁨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5살이라는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한 죽음은 가족 모두에게, 특히 레오니에게 끔찍한 슬픔이었는데, 레오니는 나이로 보아 가장

가까웠으며 자기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여동생을 늘 그리워했다.

헬렌이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젤리는 자기 남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냈었다. “난 이제껏 그렇게 사랑스러운 작은 딸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혹은 심지어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구나. 난 내가 그렇게나 기쁨을 주는 피조물의 엄마가 되는 영예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단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글을 적고 있다. “만약 네가 오늘 옷을 아름답게 잘 차려 입은 큰 아이 둘을 볼 수 있다면 좋겠구나. 모두가 그 두 아이를 칭찬했고 그 애들에게서 거의 눈을 떼지 못했단다. 나는 환한 표정이 되어 혼잣말을 했지. ‘그 애들이 바로 내 아이들이야. 나에겐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애들도 있지. 한 아이는 사랑스럽고, 한 아이는 덜 사랑스럽긴 하지만. 난 그 애를 다른 애들만큼이나 많이 사랑하지. 하지만 그 애는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큼은 안 되겠지.’ ”

바로 그 “덜 사랑스러운” 딸이 아직 2살이 채 안된 어린 레오니였다.

가족의 사별

헬렌이 사망했을 때인 1870년 2월에, 레오니는 거의 7살이었다. 그러한 비극은 헬렌 이후에 태어났으나 헬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두 명의 어린 남동생들의 이른 죽음과 가까운 시기에 벌어졌다. 곧 조셉 루이스는 1867년에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장 뱁티스트는 1868년에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사망했었다. 그러한 잔인한 상실이 레오니의 느리게 발달한 지능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주었는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셀린은 1869년 4월에 몇 달이나 더 일찍 태어났는데, 그 애는 번덕스러운 레오니가 어느 정도 사망한 아이들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비록 신체적인 건강으로 인해 훨씬 안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건강에 있어서 레오니는 가족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다. 젤리는 리지외에 살고 있었던 이시도르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우린 어제 하루 종일 레오니 때문에 끔찍한 시간을 보냈단다. 그 애는 리지외에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지. 결국, 그 애 아빠가 화를 내면서, 갈 수 없다고 그 애한테 말해야만 했어. 그리고 난 후에, 우린 약간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단다.”

통제 안 되는 기질

레오니는 성격이 더 강해지면서, 좀 거칠게, 다소 물불 안 가리게 되었다. 그녀는 무모하게 달리는 바람에 자주 넘어졌는데, 무릎이 찢어지고 앞이마에 아주 심한 상처가 생겨서 어머니가 걱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부모님을 가장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레오니의 느린 지능 발달이었다. 왜냐하면 레오니는 다른 딸들의 재빠르고, 재치가 번뜩이는 지능과는 정반대로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1869년 10월에 젤리는 (남동생) 이시도르 계령의 부인인 자기 올케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내 아이들은 자주 네 어린 잔(Jeanne)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애가 곧 다시 방문할 수 있는지 물어본단다. 우린 잔이 어린 여자애이지 남자애가 아니라고 레오니에게 설명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지. 레오니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데 느리단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 애 너무 자주 아팠지. 난 그 애가 제 때에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단다.”

다섯 달 후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제 레오니는 눈에 염증이 생겼단다. 그 가엾은 아이는 나를 걱정스럽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애는 너무 통제할 수 없는 기질에다가,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발육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레오니의 변함없이 완고한 반항심과 상식의 결핍 때문에 가족들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했다. 학교에 입학해야 할 나이가 가까워지면서부터는 마르탱 부부의 근심이 커져만 갔다. 마리와 폴린은 르망에 자리한 방문회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1870년 7월에, 켈리는 올케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난 그 애들(마리와 폴린)이 돌아올 때 그 애들과 함께 레오니를(학교에) 보내고 싶단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난 편지에다가 레오니의 성격을 언급했었는데, 원장 수녀님이 그 애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시지 않는구나. 어떤 면에서 난 오히려 기쁘단다, 왜냐하면 수녀님들이 그 애를 그곳에 데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래. 내년을 기다리는 것이 나아 보여. 그 애가 더 잘 준비될 때까지 말이야. 그 애 정말 아주 귀엽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가 말 잘 듣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르망에서의 학교생활 가능성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켈리의 편지들은 한층 더 기분 좋게 들린다. “난 언니에게 내가 얼마나 레오니의 교육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는지 말해 주었지. 언니는 그런 내 말에 대해 생각해보고서는 ‘내가 한 번 해볼게’ 라고 말해주었어. 언니는 원장 수녀님을 찾아가서 방학 동안에 그 아이를 데리고 있어보자고 청했지. 그렇게 돼서 레오니는 오늘부로 며칠 동안이나 방문회 수녀원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지내고

있단다. 그 애는 (수녀원에) 가는 것을 정말 기뻐했단다. 난 수녀님들이 그 애를 데리고 있을 수 있을 거라 희망해. 난 그 애가 좋은 손길에 맡겨져 있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난 너무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마치 낙원에라도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단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편지가 암시하고 있듯이, 만약 레오니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가족들은 고통스럽게 될 것이었다. 레오니는 1871학년도에 르망 기숙학교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레오니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개인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게다가, 레오니의 이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애의 공부와 행동을 돌봐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몇 주 전 마리 도시때 수녀는 자기 남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 “마침 그때 나는 레오니, 그 끔찍한 작은 여자애를 돌보고 있었지. 그 애는 확실히 나에겐 함부로 굴지 않는단다. 그건 계속되는 투쟁이야. 왜냐하면 그 애 나 말고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1871년 11월에, 마르탱 가족은 생 블레즈가 36번지에 위치한 저택으로 이사했다. 그 저택은 계령 조부모가 1843년에 구입했던 것이다. 마르탱씨는 자기 부인이 하고 있었던 레이스 제조업을 돕기 위해 시계 제조업 전체와 풍뉘프 가에 위치한 아파트를 자기 조카에게 양도했다. 그렇게 하면서 생 블레즈 가에서 가정생활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러나 커다란 도립 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새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분명 즐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는 성향의 레오니는 계속해서 경건한 작은 가정의 삶을 거의 지옥과 같이 만들어버렸다. 켈리가 남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을 때 레오니는 9살이었다. “난

마리가 정말 마음에 드는 구나. 그 애는 나를 아주 편안하게 해줘. 난 단지 가엾은 레오니가 좀 더 마리 같았으면 하고 바랄 뿐이야. 난 레오니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단다. 가장 현명한 현자들이라고 해도 레오니를 깊이 있게 대하긴 어려울 거야. 하지만 여전히 난 언젠가는 좋은 씨가 그 토양에서 싹이 틀 거라고 희망하고 있단다. 만약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난 기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겠지. 하지만 언니는 아마도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해. 의심할 여지없이, 언니 생각엔,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거지.”

가족들의 전반적인 삶은 레오니에게 집중되었다. 1873학년도 초에, 젤리는 르망에서 기숙하고 있었던 폴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이제 넌 장엄 영성체(Solemn Communion) 갱신을 철저히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한다. 무엇보다도 레오니가 방문회 수녀원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렴. 그 애는 정말 가고 싶어 한단다. 그래서 착해지겠다고 약속까지 했지.”

같은 시기 중에, 젤리는 올케에게 아이들 소식을 전하면서 편지를 썼다. “오직 레오니만 안정이 안 되었단다. 그 애는 8살 먹은 아이 같아. 10월에는 방문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가게 될 거야. 그 애 이모가 그 애를 한 해 더 내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말이지.”

하지만 10월에 레오니는 자기 언니들과 함께 기숙학교에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입학이 그 다음 해로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인내심 강한 레오니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글을 적었다. “만약 레오니가 첫영성체 하도록 레오니 이모가 준비시켜야만 한다는 사실이 나한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면, 그 앤 절대로 방문회에서 운

영하는 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난 우리 언니가 그 애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보고 싶단다.”

(다음 호에 계속)

(17쪽에서) 한편, 프랑스의 오튀 가르멜(Autun) 수녀들은 1934년 파푸아뉴기니아에 가르멜을 창립했다. 사모아(Samoa)에는 1959년에, 그리고 괌(Guam)에는 1965년에 가르멜 수녀원이 창립되었다. 1973년에는 홍콩 가르멜(Hongkong) 수녀들이 하와이(Hawaii)에 가르멜을 창립했다.

이처럼 오세아니아 일대에 가르멜의 카리스마가 퍼진 것은 근본적으로 성녀 데레사가 지녔던 열렬한 선교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녀의 후예인 가르멜 수녀들은 이 정신을 잊지 않고 자신들이 지닌 소중한 정신을 쉽 없이 자신들의 조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전하러 노력했다. 또한 이러한 카리스마의 전파에는 가르멜 수사들의 협력도 있었다. 가르멜 수사들이 오세아니아 지역에 진출한 것은 1948년의 일이다. 가르멜 수녀들은 수사들의 진출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했으며 시초부터 그들과 더불어 깊은 형제애를 나누며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꽃피우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현재 오세아니아 대륙에는 13개의 가르멜 수녀원에 약 190명의 수녀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91년 회헌」을 따른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가르멜 수녀들은 전 세계적으로 92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현재 대략 900개의 수녀원이 있고 그중에 770개가 「91년 회헌」을 따르며 127개가 「90년 회헌」을 따른다. 그리고 3개의 수녀원은 기본적으로 「90년 회헌」을 따르되 「91년 회헌」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인다. 「91년 회헌」을 따르는 수녀들은 대략 10,500명 정도가 있으며, 「90년 회헌」을 따르는 수녀들은 대략 1,600명 정도가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수도회 역사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51)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수도원

13.2.2. 아시아의 가르멜 수녀원

6) 일본 가르멜 수녀원

일본에 선교사로 파견된 부스케(Bousquet) 신부가 1911년 소화 데레사의 작품들을 불어에서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일본 교회 내에서는 가르멜 영성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많은 주교들과 사제들이 자신들의 교회 내에 가르멜 수녀원을 두고 싶어하는 열망이 크게 일어났다. 일본에 첫 번째 가르멜 수녀원이 창립된 것은 소화 데레사가 시성된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1933년에 이르러서였다. 이 계획을 주도했던 공동체는 프랑스의 솔레 가르멜(Cholet)이었다. 이 공동체의 수녀들은 일본에 가르멜을 창립하기 위해 1933년 1월 10일 솔레를 떠나 약 한 달 보름을 항해한 끝에 같은 해 2월 25일 요코하마에 도착했다. 이들은 도쿄의 고지마치 지역에 안착해서 수녀원을 창립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일본 성소자들이 꾸준히 모여들면서 가르멜은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두 번째 가르멜은 1947년에 도쿄 가르멜 수녀들에 의해 창립된 오사카 가르멜(Osaka)이다. 반면, 세 번째 가르멜인 후쿠오카 가르멜(Fukuoka, 1951)은 벨기에의 브뤼허 가르멜(Bruges)과 블랑켄베르허 가르멜(Blankenberg) 수녀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1990년대까지 꾸준히 창립이 이어져 왔다. 다음은 그간 창립된 수녀원들이다: 교토 가르멜(Kyoto, 1959), 홋카이도 가르멜(Hokkaido, 1962: 이는 훗날

다테로 이전되었다), 오이타 가르멜(Oita, 1978), 야마구치 가르멜(Yamaguchi, 1979), 토키오 가르멜(Tokachi, 1990).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다른 가르멜이 창립되었다. 현재 일본에는 9개의 가르멜 수녀원이 있으며, 모두 「91년 회헌」을 따른다. 일본 가르멜 수녀들은 남자 가르멜이 창립되기를 염원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52년에 일본에도 남자 가르멜이 창립되었다.



사이공 가르멜 수녀원

7) 베트남 가르멜 수녀원

현 베트남이 구성되기 이전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던 지역인 코친차이나, 안남, 퉁킹 이 세 지역은 인도차이나 연방에 속했다. 이곳에는 19세기 중반부터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가르멜의 영성이 보급되었다. 1861년 리지외 가르멜은 사이공 가르멜(Saigón)을 창립했다. 이 창립 이후, 베트남 출신의 성소자들이 입회하기 시작했다. 사이공 가르멜은 창립 이후 초기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공동체를 안정시켰다. 여기서부터 1865년 하노이 가르멜(Hanoi)이 창립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참 후인 1909년에 와서 세 번째 가르멜인 후에 가르멜(Hue)이 창립되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1921년 부이추 가르멜(Buichu), 1929년에 탄호아 가르멜(Thanhhoa)이 창립되었다. 이 두 수녀원은 1차 세계 대전 이후 나트랑(Nhatrang)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 한편, 사이공 가르멜은 1919년에 캄보디아에 프놈펜 가르멜(PnomPehn)을 창립했다. 그리고 프놈펜 가르멜에서 방콕 가르멜(Bangkok, 1925)이 나왔다. 1929년에는 팟디엠 가르멜(Phatdiem)이 창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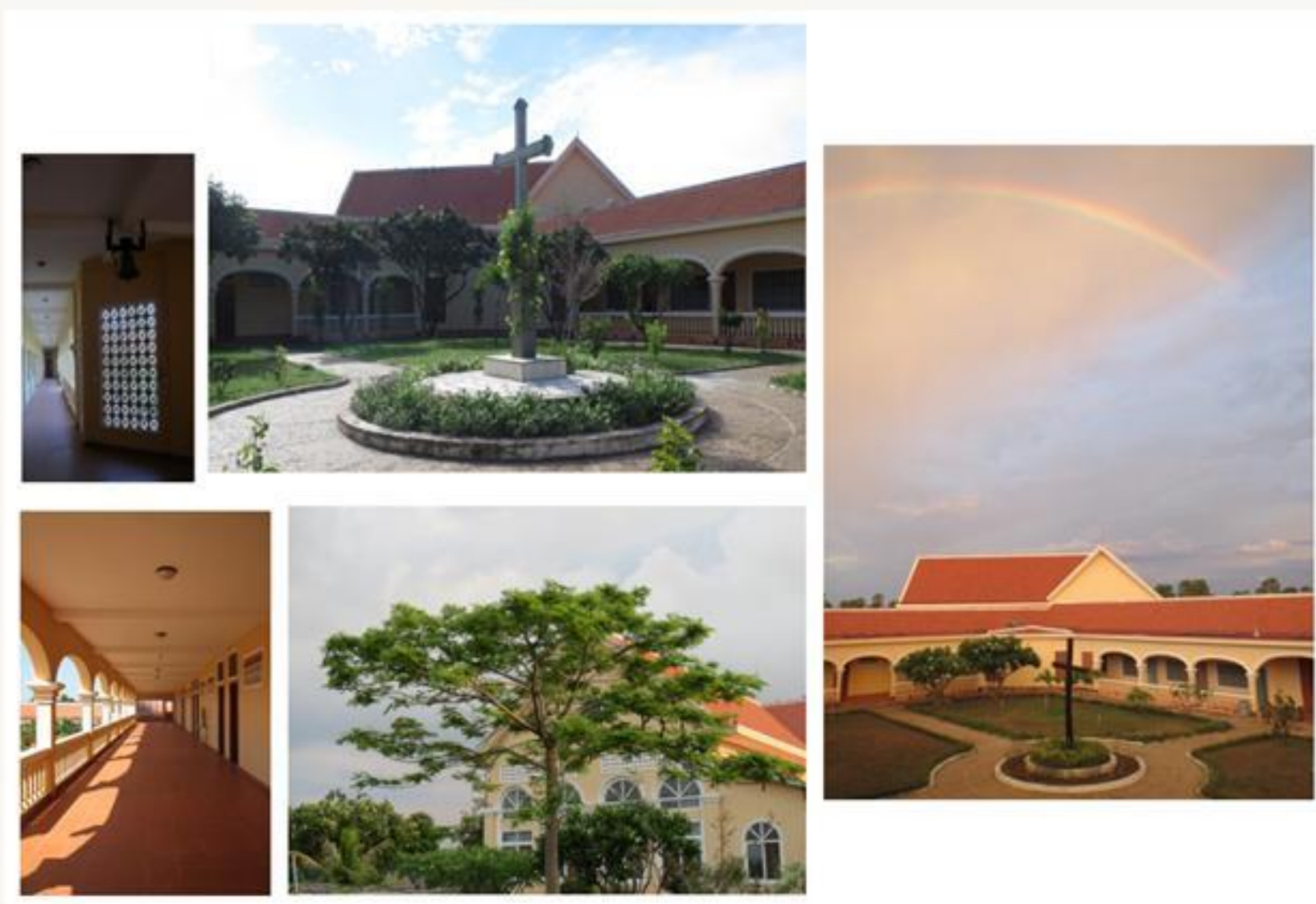
그러나 베트남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 수도회들을 탄압하면서 5개의 가르멜 수녀원은 위기를 맞게 된다. 결국 수녀들은 박해를 피해 프랑스로 되돌아가야 했으며,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던 북부 베트남에서 가르멜 수녀원은 자취를 감췄으며, 남부 베트남에 있던 수녀원들만 명맥을 유지했다. 그 후 베트남 전역이 공산화됐으며 이로 인해 가르멜 수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베트남의 가르멜 수녀들은 곳곳하게 성소를 지키며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5개의 가르멜 수녀원이 있으며 이들 모두 「91년 회헌」을 따

르고 있다. 베트남 가르멜 수녀들은 남자 가르멜을 창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남자 가르멜 지원자들이 필리핀 관구에서 양성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머지않아 베트남에 남자 가르멜이 창립되어 가르멜 수녀들을 동반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8) 그밖에 아시아 지역의 가르멜 수녀원

지금까지 소개한 지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도 가르멜 수녀원이 진출해서 성녀 데레사의 영성을 꽃피우고 있다: 레바논(2개), 말레이시아(4개), 파키스탄(1개), 시리아(1개), 스리랑카(3개), 태국(3개), 대만(2개), 캄보디아(1개). 이 수녀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녀원이 공산주의 정권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가운데 중국과 캄보디아에서는 가르멜 수녀원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다행스럽게도 캄보디아에는 지난 2002년 프놈펜교구 총대리인 브루노 코스모 신부와 서울 가르멜 수녀들 간의 만남을 계기로 창립 계획이 구체화되었으며, 2005년 6월 서울 가르멜에서 5명의 창립 멤버들이 파견되어, 공산정권으로 인해 사라진 프놈펜 가르



서울 가르멜에서 진출한 프놈펜 가르멜 수녀원

멜을 대신해서 새롭게 수도 공동체를 창립했다. 프놈펜 가르멜 수녀들은 불교와 공산주의로 점철된 캄보디아에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시아 지역에는 총 114개의 가르멜 수녀원이 있으며, 그 가운데 108개가 「91년 회헌」을 따르고 6개가 「90년 회헌」을 따르고 있다.

13.2.3. 오세아니아 지역의 가르멜 수녀원

오세아니아 지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비롯해 태평양 일대의 다양한 섬들로 구성된 여러 나라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방금 언급한 두 나라를 비롯해 괌, 사모아, 파푸아뉴기니아, 하와이 등이 속해 있으며, 이곳에도 가르멜 수녀들이 진출해 있다. 이 지역에 가르멜 수녀들이 진출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이곳의 지역 교회를 돕기 위한 가르멜 수녀들의 열망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수녀들의 열망은 비오 12세 교황께서 선교 지역에 관상 수도회들이 진출해서 지역 교회들을 기도로 동반하도록 명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이는 관상 수도회들의 진출로 인해 관상 생활을 열망하는 그 지역 출신의 성소자들이 수도회에 입회해서 자신의 성소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 처음 설립된 맨발 가르멜 수녀원은 1885년에 세워진 시드니 가르멜(Sidney)이다. 이 창립에 투신했던 수녀들은 프랑스 가르멜, 구체적으로는 앙굴렘 가르멜(Angoulême) 공동체의 수녀들이었다. 이 공동체 출신의 12명의 창립 멤버 수녀들은 1885년 6월 3일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프랑스를 떠나 7월 30일 시드니에 도착했다. 당시 낯선 땅에서 이들을 도와 창립을 준비했던 이들은 마리스타 수도회 소속 수사들이었다. 시드니 가르멜은 그해

창립되었으며, 그로부터 3년 후인 1888년 처음으로 성소자가 입회했으며 그 후 그곳 출신 성소자들이 서서히 모여들어 수녀원이 유지되었다. 이 수녀원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모원으로서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며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대로 들어와 성소의 부족으로 인해 1986년 파르데 가르멜(Pardes)과 합쳐서 시드니 외곽의 바로빌(Varroville) 지역으로 이전해서 지금까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가르멜은 이 시드니 가르멜을 모원(母院)으로 해서 많은 공동체를 창립했다. 무엇보다도 1922년에 멜버른 가르멜(Melbourne)이 시드니 가르멜을 모태로 창립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는 1973년에 기존의 맨발 가르멜과는 다른 삶의 형태를 선택해서 독자적인 수도승원으로 독립해 나갔다.

세 번째로 창립된 공동체는 브리즈번(Brisbane) 교외에 있는 오션플라워 가르멜(Auchenflower, 1927)이다. 이 공동체는 1965년 오미스톤(Ormiston)으로 이전했다. 다음은 그 이후에 창립된 수녀원들의 목록이다: 글렌오스먼드 가르멜(Glen Osmond, 1935), 네드랜즈 가르멜(Nedlands, 1935), 롱포드 가르멜(Longford, 1948: 이 공동체는 1975년에 론서스톤[Launceston]으로 이전했다), 리즈모어 가르멜(Lismore, 1962), 시드니-덜위치힐 가르멜(Sydney-Dulwich Hill, 1966), 다르단업 가르멜(Dardanup, 1976: 이 공동체는 1984년에 겔로럽[Gelorup]으로 이전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르멜 수녀들은 성녀 데레사처럼 사도적인 열정으로 총만해서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다른 나라에도 전하려 시도했다. 그 결실로 시드니 가르멜 수녀들은 1933년 뉴질랜드에 크라이스트처치 가르멜(Christchurch)을 창립했다.

(14쪽으로)

* 신간 안내 *

오리게네스에게 영성을 묻다

(가톨릭 영성학교 시리즈 2번)

저 자: 윤주현 분도 신부

출판사: 가톨릭 출판사

분 량: 300페이지 (구입문의: 02-6365-1833)

내 용: 『오리게네스에게 영성을 묻다』는 작년부터 가톨릭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기 시작한 「가톨릭 영성 학교」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다. 「가톨릭 영성 학교」 시리즈는 가톨릭 출판사 사장 신부님과 편집부의 제안으로 윤주현 신부가 기획, 집필하는 영성 시리즈로 향후 10년간 30권 이상이 출간될 예정이다. 「가르멜 총서」와 「가르멜의 향기」 시리즈가 가르멜 영성 관련 작품들만을 기획, 출간하는데 반해, 「가톨릭 영성 학교」 시리즈는 교회 내의 모든 영성 주제들(영성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영성가들, 영성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전체적으로 제시한다.

사실, 교회 내에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시대마다 다양한 성성(聖性)의 모델이 되어 천상을 향한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왔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영성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영성가들에게 영성적인 원천이 되어준 중요한 교부 한 분을 만나게 된다. 다름 아닌 ‘오리게네스’가 그분이다. 「가톨릭 영성 학교」 제2권은 오리게네스의 생애와 주요 영성 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원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성녀 데레사가 깊은 신비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여러 작품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개념들은 이미 성녀보다 1,200년을 앞서 살았던 오리게네스 교부의 영성 세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녀 데레사가 말하는 ‘영적 결혼’, ‘사랑의 상처’, ‘사

랑의 불화살’, ‘탈혼’ 등은 오리게네스가 집필한 영성 관련 작품들, 특히 『기도론』, 『아가 주해』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오리게네스는 이런 자신의 영성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삼중적인 이해(영, 영혼, 육체)와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함’으로 창조된 인간을 『원리론』, 『창세기 강론』 등에서 소개하고 있다.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여정을 인간학적으로 이해하자면, 인간의 본질적 영역인 영혼이 ‘영’(靈)을 향해 나아가는가 아니면 육체를 향해 퇴보하는가와 맞물려 있다. 이처럼 영성이 인간학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작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오리게네스의 가르침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 후대의 많은 영성가, 성인들에게 주요 영성의 원리로 전수되었다.

또한, 오리게네스는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여정을 가나안 복지를 향해 40년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비유해서 심도 깊게 설명했다. 이는 그의 작품 『탈출기 강론』과 『민수기 강론』에서 잘 소개되어 있다. 『오리게네스에게 영성을 묻다』는 이런 다양한 영성 주제들을 한 곳에 모아 쉬운 문체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1,800년 전에 소개된 그의 영성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하는 점들을 성찰해서 담아냄으로써, 오리게네스의 영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보다 깊이 있게 영성의 핵심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준다. 가르멜 영성 뿐만 아니라 교회 내 모든 영성을 아우르는 가장 근원적인 영성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싶은 신자들에게 이 책은 좋은 영적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 어두운 밤 연구 *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20)

레오나드 두한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 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현대 생활에서의 어두운 밤의 형태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기

어두운 밤에 대한 현대시대의 경험은 “이 세상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압도적인 악과 고통들을 직면하여 사랑스러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³⁾이다. 요한은 그 시대의 싸움에 몰두하였고,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충돌에서 “부지불식간의 인질”이 되어 갈등과 고통의 증인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 갇혔고, 어찌하여 하느님께서서는 그를 이러한 식으로 다루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했다. 자신의 고통과 고통 속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과 하느님의 초월성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었다. 오늘날 학대, 버림받음, 증오, 괴롭힘과 조직적인 악과의 싸움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악과의 충격적인 직면 후에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기 위한 싸움”⁴⁾을 한다.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늘 하던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가? 어찌하여 고통이 군사 도구와 정부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의도적으로 가해지는가? 물론 그리스도인과 가톨릭 신

자로서 우리는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조직화하고 감독했던 아우슈비츠와 그 공포의 기억을 직면해야만 한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굴욕을 당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위험한 기억”은 강력하다. 그것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죄인이며 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경험과 악에 대한 인식에서 나와서 정화되고 더 낮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아무도 제안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자주 더 나빠진다. 수동적인 밤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제시하도록 하는 대신에, 우리의 사악한 세상의 공포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믿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하느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여러 양상들에게 전면적으로 도전하지 않는가? 악과 마주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을 믿을 수 없거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는가? 이것은 신앙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어두운 밤에서 기대했듯이, 신앙과 하느님에 대한 이해의 정화일 것이다. 즉,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스러운 분”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악들의 일부는 지속적이고 미해결된 불의의 억제되지 않은 실체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사회악 속에서 산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에 완전히 무력한 것처럼,

3) 이 부분은 Steven Payne 신부의 논문 “하느님께 올바른 질문을 하기,” *Spiritual Life* 25(1979): 204-214를 참조하였다.

4) 같은 책, p.209.

5) 같은 책, p. 211.

그것은 우리 세상과 교회 속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진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기적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사회적 불의의 뿌리는 그런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사실에 있다. 어떤 선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언제나처럼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것으로 놔두면서, 그런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일할 뿐이다. 사회적 불의는 정화와 조명을 받아야만 한다고 우리가 외쳐야 하는 어두운 밤이며, 추리적 설명과 정당화를 멈추도록 해야 하는 어두운 밤이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느님의 초월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자기반성적 분석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 세상의 악과 인류의 악 앞에서의 사람들의 무력함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방식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세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느님께 질문할 때, 우리는 또한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느님이 아니시며,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실체를 직면한다. 악을 직면하는 어두운 밤은 수동적인 밤이며, 우리는 예전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악에 잠겨 고통을 당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믿었던 그 하느님을 이해할 길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전의 우리와 다른 사람이 되라고 부르는 변화적 밤일 수 있다.

교회의 기나긴 어두운 겨울 밤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예전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온다. 이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고 방향감각도 없어지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개입하시는 것 같지도 않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 여정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고통(苦悶)에 대한 적절한 설명 이상의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교 교회의 지속적인 위기는 정화의 수동적인 밤을 몹시 필요로 하는 “기나긴 어두운 겨울 밤”⁶⁾이다.

많은 독자들은 확실히 자기 교회 안에서 매우 편안하게 성장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公會議)의 쇄신(刷新)의 요구에 열정적으로 응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많은 이들은 교회에서 이방인처럼 느끼고, 교회의 가르침이 더 이상 과거처럼 그들에게 의미가 있지 않는 것 같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일상생활의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심리적, 혹은 사회적 초점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진 특별한 이미지와 욕구를 강조하며, 자신들이 “보수적” 가톨릭 신자이거나 “진보적” 가톨릭 신자라는 점을 힘주어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심 깊은 사람들은 오늘날 자신들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에서 외톨이나 이방인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더 이상 매주 모임에 나가지도 않고, 교회는 예전과는 달리 현대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렇게 많은 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전보다 더 영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6) Patrick Berquist, "A Long Dark Winter's Night," *Spiritual Life* 53(9/2007): 35-40을 보라.

예전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에서 발견했음에도, 이제는 어두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들, 심오한 영성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원할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비전에 대한 정신과 공동체 경험과 영적 지도력을 갈망한다. 불행히도 그들은 너무 많은 문제들에 짓눌린다. 온 세상에서 교회는 성추문, 파산, 교회의 폐쇄, 교구 신자와의 싸움, 재정적 실패, 신학자들을 침묵 시킴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만난다. 불행히도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문제들인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신자들조차 자신감을 크게 잃었다고 느낀다.

어두운 밤에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죽고, 그러고 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신적 생명의 새로운 이미지를 주신다. 마찬가지로 많은 신자들의 눈에 교회에 대한 이전의 이미지는 죽어가고 있는데도,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이 쇠신의 첫 단계로서의 정화가 필요한 감각 대상들과 욕들에 여전히 애착하고 있음을 우리는 매우 슬픈 마음으로 보게 된다. 교회가 항상 훌륭하면서도 항상 죄가 많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 오히려 그들은 지도자들과 추종자들 모두에게 똑같이 어두운 밤의 수동적 정화가 필요한 남은 방법들에 무기력하게 매달리고, 그리하여 교회가 다시 한 번 인간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를 사랑했지만 지금은 슬퍼하고 버림받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사랑의 사다리를 적용하는 것이 이 기나긴 겨울밤을 변화되는 새벽으로 이끌 수 있다.

힘든 시기의 소명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제직이든 수도생활이든 결혼생활이든지 교회

안에서 특정한 성소에 전념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고 슬퍼한다. 우리는 역할과 부르심의 해석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이 감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뒤흔들어 왔던 성추행, 모든 종류의 학대, 그리고 금융 사건들까지 직면해야만 한다. 과거에도 교회에 이와 같은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 세대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과거의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젊은 교회들도 똑같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분명하게 눈에 띄고 다른 것들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이다. 애석하지만 우리는 많은 공동체들이 나이가 많은 은퇴한 수도자들로만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어떤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자기 공동체의 생계를 위하여 많은 나이에든 일을 해야만 하고, 이전에는 쉽게 수행했던 사목적 요구에 겨우 응답하는 것 같다. 공동체들은 죽어가고 있고, 신학교들은 비어 가는데, 수도자들과 사제들은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들은 봉헌생활의 핵심, 영성생활의 특징과 자기 부르심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교회의 희망과 갈망을 건드린다.

이 모든 것이 세속화, 소비자 사회, 현대주의의 실패와 증가하는 이기주의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것이다. 우리는 헌신이 증가하고 영성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제와 수도생활에 대한 현대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그것 때문인가? 그들이 모두 매력을 잃어버린 것은 젊은 사람들의 헌신적 노력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적 삶에서의 그들의 이런 외형적 소명이 예전처럼 의미를 가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25쪽으로)

* 영혼의 성 연구 *

예수의 성녀 테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4)

키에란 카바나프, O.C.D./ 캐롤 리시, O.C.D.S.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제 6 궁방

제11장

이 은혜들은 작은 나비에게
더 큰 고통을 남겨준다

1. (1-3항) 테레사는 하느님께 대한 영혼의 깊은 갈망들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그녀는 작은 나비, 혹은 나방으로 돌아온다. 그것은 그 어떤 것에도 쉴 수 없는 듯이 보인다. 영혼이 더욱 많은 은혜들을 받을수록,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아직도 그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고 당신을 즐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고통을 당한다. 그녀는 이러한 소망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고통을 받는 영혼들 안에 또 다른 것이 일어난다. 그 영혼은 우리의 세속적 본능의 모든 것을 먼지로 만드는 화살에 의해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상처를 입는다. 그 영혼의 모든 관심사는 이러한 경험에 따르고, 이러한 경험 속에서 전해진 하느님께 대한 강렬한 지견은 영혼이 두 가지-하느님께 대한 황홀한 지견과 동시에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다는 느낌-를 이해함에 따라 가장 깊은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테레사는 이것은 연옥에 있는 영혼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2. (4항) 테레사는 하느님께 대한 이러한 경험에 동반되는 육체적 느낌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영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한다.

3. (5항) 테레사는 자신의 설명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나는 비난에 대하여 대답한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지식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이란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영혼은 이성을 제어할 수 없다. 그 영혼은 자기에게 어떠한 매력도 주지 못하는 세속적인 것들과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바라면서 결코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는 하느님 사이에서 고통에 매달려 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그 영혼이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다. 테레사는 이러한 소망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든다.

4. (6-7항) 테레사는 계속해서 영혼의 고통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고통은 그 영혼이 나중에 받을 상급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녀는 또한 그 고통이 그 영혼으로 하여금 제7궁방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한 정화를 해 준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고통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에서의 고통과 비교한다. 주님께서서는 영혼이 영적 고통을 이해하여, 당신의 자비를 통하여 당신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상태로 이

끌어주시는 당신께 빛을 졌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신다고 그녀는 말한다.

5. (8항) 데레사는 가장 커다란 그 고통의 강렬함은 짧은 시간 동안-기껏해야 서너 시간 정도-만 지속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15분 정도의 이러한 고통의 강렬함이면 그 영혼을 산산조각내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러한 경험은 저항할 수 없고 순식간에 올 수 있다. 너무나도 꿈쩍 못하는 다른 이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에 대하여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곁에 있을 뿐이다.

6. (9-11항) 데레사는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에 죽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요약한다. 주님만이 치료약을 주실 수 있고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다는 결심과 함께 힘을 주실 수 있다. 데레사는 이러한 강렬한 소망의 은혜에 따르는 많은 좋은 효과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데레사는 이러한 길에서 사람을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는 갈망의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강렬한 기쁨이다. 그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너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그녀는 우리가 “예.”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믿는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길에 필요한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설 명

1. 데레사는 언제나 커다란 소망을 지닌 여성이었다. 「자서전」에서 그녀는 “이러한 방식의 소망들 중에 저는 언제나 커다란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자서전」 13, 6)이나 “저는 소망을 제외하면 불완전 덩어리입니다”(「자서전」 30,

17)라고 썼다. 그러나 그녀가 말한 이러한 소망들은 이제 그녀의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부터 일어나면서 우리의 감정에 따른 본능이나 우리의 이성적 갈망이나 소망의 깊은 곳을 넘어 다른 영역에서 온다. 데레사의 개인적 역사에서 그녀는 판단 기준에 도움이 되는 경험과 관련이 있다. 그 일은 1571년 살라망카에서 부활절 공동체 오락 시간에 일어났다. 젊은 수련자 히메나의 이사벨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간절한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Veante mis ojos/ dulce Jesus bueno/ veante mis ojos/ muerame yo luego.”(제 눈이 당신을 보게 해 주세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예수님/ 제 눈이 당신을 보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곧 죽을 거예요.) 「아가에 대한 묵상」에서 그녀는 황홀경의 원인이었던 그 아름다운 노래가 멈추지 않았다면 그녀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그녀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어떻게 쉽게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말한다. 그러한 말과 수반되는 음악을 들으면서 데레사는 깊은 황홀경에 빠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육신을 수도원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옮겼다. 그녀는 「영적 보고」 59, 14-16에서 이 경험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데레사는 우리 주님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관계와 비슷한 관계를 자주 경험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녀는 「영적 보고」 중 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너무나 강했던 죽음에 대한 소망과 충동은, 특히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이후에 나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섬기기 위하여 저는 기꺼이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예외적으로 아무리 당신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영적 보고」 17).

2. 이사벨이 노래를 하던 이 일이 있고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데레사는 십자가의 요한 수사에게 영적 지도를 받기로 하면서 강생 수녀원에 원장 수녀로 돌아왔다. 그때 그녀는 50대였고 요한 수사는 겨우 30대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렇게 죽고 싶다는 커다란 소망의 신비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사실 두 사람은 Que muero porque no muero(나는 죽지 못해 죽네)라는 후렴의 시를 썼다. 이런 커다란 소망의 시기는 데레사가 제7궁방에 들어가면서 끝났다. 그녀 자신이 십자가의 요한으로부터 영성체를 받고 난 1572년 11월 18일이었다.

3. 데레사가 이렇게 폭풍같은 소망을 경험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소망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비가의 특별한 인간적 상황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녀의 영이 가장 정제된 시점에 그녀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부재-그녀가 살고 사랑하고 지니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누군가의 부재와 초월-를 인지한 때가 온다. 그리고 동시에 이 누군가는 우리 삶의 세속적 조건 때문에 획득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한 점에서 그 영혼은 조금씩 줄어들고 점점 쇠약해지고 삶에 대하여 덜 충족스러운 감각적 세상에 끼워 넣어지고 거기에 근거를 두게 된다. 그것은 마치 창조된 온 세상이 공허와 불충분의 영역으로 떨어진 것과 같다. 이것은 신비가들 안에 완전한 고독의 느낌을 만들게 된다.

그 영혼이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면, 온 세상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함께 할 수가 없고, 나는 하늘에 있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데, 오히려 모든 것은 고통만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낯선 고독을 느낍니다...이러한 갈증에 타고 있는데 그 영혼은 물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그

런데 어느 누구도 그 영혼에게 그러한 물을 주지 않습니다(「성」 6, 11, 5).

4. 이러한 고통은 그러한 강도로는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기껏해야 서너 시간만 지속됩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기적이 아니고서야 나약한 본성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5분 정도 지속된 적이 있었는데 영혼이 거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성」 6, 11, 8).

5. 「영적 보고」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고통에 대한 다른 구절을 찾을 수 있다.

사실은 영혼이 그때 이해한 모든 것에 고통이 더해졌고,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온 존재가 다른 것에서 유익함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영혼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너무나 커다란 고독 속에 있고 도저히 글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온 세상과 그 영혼의 사정들이 고통을 주고,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영혼과 함께 할 수가 없으며, 그 영혼도 창조주가 아닌 그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죽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죽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영혼은 죽고 싶은 갈망으로 그렇게 죽으니, 죽음에 대한 진정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자신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영적 보고」 59, 14).

그러한 경험의 유익함에 대해서는,

그것이 올 때 저항할 길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만큼, 그 영혼은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기로 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그 영혼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전보다 세상을 더욱 더 무시하게 됩니다. 그 영혼은 이제 창조주만이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만족시키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피조물로부터 훨씬 더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당신께서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고통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더욱 조심하며 당신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을 가집니다(「성」 6, 11, 10).

논의를 위한 질문

1. 하느님의 은혜가 영혼에게 더 큰 고통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여기에서 설명된 그 고통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3. 영혼이 죽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뜻에 맞게 행하려고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그러한 경험을 한 영혼이 영원히 메마름을 느낄 수가 있는가?
5. 그 영혼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나서 피조물로부터 더욱 이탈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호에 계속)

청빈의 형태들, 수도적 수련들, 공동체 조직들, 성직자의 독신주의, 권력과 권위의 형태, 성 문제들과 같이 두드러진 문제들은 모두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인 정화가 필요한 감각 대상들이다. 다른 경우에 봉헌 형태들, 서원의 해석, 수도적 봉헌의 체계들, 바티칸의 중앙집권적 통제의 영향, 카리스마의 현대적 중요성, 사목적 현안들과 공동체의 임무는 영의 수동적 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온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있고, 우리 스스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심리적·사회학적·종교적·영적 분석들(능동적 밤의 반응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최악,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없는 무능력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동적인 밤 속에 있는 교회로서 하느님에 의해 정화되어야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미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하여 마음을 개방해야만 한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하느님께서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봉헌의 특정한 구조와 형태들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온다. 어두운 밤에 이미지들은 죽고 하느님의 선물로서 새로운 실체가 나타난다. 어두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어두움이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의도적으로 어두움을 연장한다면, 우리는 변화하는 교회를 위한 하느님의 새로운 사랑의 빛에 교회가 정화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

(21쪽에서)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수도복,

7) William Quinn, "Beyond the Signs of the Times: Priesthood and Religious Life in a Troubled Season," *Spiritual Life* 37 (1991): 101-106 참조.

* 자서전 연구 *

성녀 테레사의 『자서전』 해설 (25)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 인천 수도원

3. 숨어서 신비가를 기다리는 두 가지 위험

성녀 테레사는 지나간 자신의 과거 삶의 잘못과 탈선들을 돌아보며 슬퍼하는 가운데,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역시 자신이 범한 잘못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죄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특히, 성녀는 여기서 독자들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경계하도록 배려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뢰 (*excesiva confianza*)이며, 다른 하나는 거짓된 겸손(*falsa humildad*)이다. 심지어 성녀는 합일에 도달한 신비가에게도 이를 주지시켰다. 그에 따르면, 이승의 여정에서는 절대적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안전이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나약함이 수반되며 죄를 지을 가능성 역시 함께 존재한다: “기도 중에 지극히 큰 은혜를 받게 된다 해도, 영혼은 자기 자신을 조금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13절)

이어서 성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자신을 신뢰하는 데서 자신이 입게 될 손해도 아직 모릅니다”(14절).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다: “위험스런 기회라면 어떤 경우든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을 잘 경계해 주십시오. 이 권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영혼들이 이 상태에 한번 다다랐어도, 또한 아무리 좋은 소망과 결심을 품었어도... 죄가 되는 기회나 위험을 극복할 만한 힘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 좋은 가르침으로, 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13절).

성녀가 이 경계 수칙을 독자들과 나눌 당시에는 영적 여정의 최절정인 7궁방에 들어가는 은총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성녀는 아직 자신의 내면에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내게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보고 35). 하지만 성녀는 신비적인 은총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이런 확실함을 보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수칙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하느님께서 제 영혼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제 영혼은 안전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이런 상태에 여러 해 동안 머물렀지만,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7궁 2, 9; 참조. 7궁 4, 3). 그러므로 최종적인 상태에 이른 신비가에게도 희망하는 가운데 깨어있도록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서 성녀가 가르치는 두 번째 위험은, 죄를 지음으로써 걸려 넘어지거나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경험한 다음, 거짓된 겸손 속에 자신을 가두려는 것이다. 성녀는 이런 암초에 직면해서 다음과 같은 반대되는 수칙을 강조했다. 즉, 혼신을 다해 하느님을 신뢰하고 기도 중에 그분과의 우정 어린 교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녀는 가르쳤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악을 훨씬 넘어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게 하신 바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게 용서를 베푸시는 데 실증을 느끼기에 앞서, 제가 주님을 배반하는 데 먼저 실증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주시는 데 지칠 줄

모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의 보화는 없어지지 않으니, 그 보화를 쉴 새 없이 받아들입시다”(15절).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성녀는 예수님의 승인과 더불어 끝맺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상동).

4. 하느님을 향한 한 마디 말

성녀는 19장의 중심에 마치 화살을 쏜 것과 같은 한 마디 말을 박아놓았다. 그것은 외침이자 청원이고 기원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는 주님을 향한 성녀 데레사의 평소 마음가짐을 잘 드러내준다. 이는 다음과 같다: “주님, 부디 제 잘못이 항상 이런 성질의 것이옵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당신을 거스르는 것을 결코 허락치 마시옵고, 차라리 즉시 저를 허무로 돌려 보내 주소서”(9절).

제20장: 탈혼에서부터 시작된 삶 하느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

새로운 가치들의 목록. 거대한 영지(領地)

자서전 20장은 밀도 깊은 감정과 높은 영적 긴장이 흐르는 장이다. 이 장은 상당히 감탄스러운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성녀 역시 이 점을 본 장의 제목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실로 감탄할 만하다”(제목). 성녀는 이 장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깊은 감각과 더불어 그분의 부재(不在)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성녀는 그분이 너무 멀리 계시며 동시에 그분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표현했다. 성녀는 이 점을 특히 그분의 현존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 간절한 자신의 염원을 전하고 있다: “이 밖에 영혼이 큰 슬픔에 잠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는 ‘네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하고 자신에게 묻습니

다”(11절).

성녀는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비적인 사건들을 보여주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성녀가 말하는 여기란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을 일컫는다.⁸⁾ 성녀는 그곳에서 원장 소임을 수행하고 있었다(5절). 이제 성녀는 자신의 신비체험에 있어서 정점에 이른 이 시점에서부터 글을 써 내려갔다. 성녀가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그런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성녀가 쓰는 모든 글에서 드러나는 신비적인 주제들은 그런 자신의 자전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성녀는 본장의 한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제 영혼이 현재 늘 머물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12절). 이 선상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이것은 이 책에서 보고된 모든 것 다음으로 제게 주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현재 저를 머물게 하신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런 격렬

8) 성녀는 1565년 말경에 아빌라에서 『자서전』을 쓰고 있었다. 아빌라는 성녀 데레사의 고향이자 강생 수녀원에 몸담고 30여 년간 수도생활을 한 곳이자 1562년 첫 맨발 가르멜 수녀원인 성 요셉 수녀원을 창립한 후 1567년까지 살았던 곳이다. 또한 성녀는 1571년부터 1574년까지 강생 수녀원의 원장으로서 아빌라에 살았다. 물론 그 와중에 새로운 수녀원 창립을 위해 수시로 아빌라를 떠나 창립 여행을 하곤 했다. 아빌라에는 성녀와 관련된 주요 성지 세 곳이 있다. 성녀가 태어나 자란 생가 터 위에 세운 생가 성당 수도원과 성당(Iglesia de la Santa), 성녀가 입회해서 살았던 강생 수녀원, 성녀가 세운 첫 번째 맨발 가르멜인 성 요셉 수녀원. 또한 아빌라에는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영성을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산실 역할을 하는 신비신학 대학원이 있다. 성녀의 창립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절대적인 후원자는 성 요셉 수녀원 창립(1562년) 당시 아빌라의 교구장이던 멘도사의 알바로 주교였다. 성녀의 영적 여정으로 볼 때도 아빌라는 의미 깊은 곳이다. 성녀가 6궁방에 도달하는 가운데 영적 약혼의 은혜를 받은 것은 1556년 강생 수녀원에서였다. 또한 영적 여정의 최고봉인 7궁방에 도달하면서 영적 결혼의 은혜를 받은 것 역시 1572년 강생 수녀원에서였다. 한 마디로 아빌라는 성녀가 태어나 자란 곳이자 영적으로 완성된 곳이다.

함은 여태껏 제가 적어 왔던 주님께 받은 은혜보다 나중의 것입니다”(15절).

성녀는 여기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에는 자신처럼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수녀가 자신만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많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또한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게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 까닭입니다”(21절).

성녀는 자신이 쓰고 있던 이 글의 첫 번째 수취인인 틀레도의 가르시아 신부가 이 글을 통해 나누고 있는 신비 체험들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읽고 공감하리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다: “아마도 저는 제가 말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부님, 신부님은 제가 어느 정도 바르게 말하는지 어떤지 아실 겁니다”(21절). 더 나아가, 성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르시아 신부가 같은 신비적인 은총의 바다에서 기뻐하며 이 체험을 향유할 것임을 확신했다: “주님은 이미 신부님께 이 은혜를 베풀었으니 말입니다. 하기가 그 은혜를 받으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으니, 저만큼 그 사실을 관찰하지 못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상동).

또한 성녀는 점점 더 강렬하게 자신을 사로잡는 이 신비적인 은총이 자신에게서 생명을 앗아갈 것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종종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끝나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죽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큰 형벌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13절).

여기서부터 성녀의 글은 불규칙하고 불안정하게 드러난다. 본 장의 제목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성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했다: “합일과 법열간의 차이를 다루고”, “법열⁹⁾이란 어떤 것

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녀는 이를 위한 이론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본 장의 초입 부분 몇 절만을 할애했을 뿐이다(1-3절). 사실, 성녀는 기도의 “네 번째 단계”를 설명하려는 계획을 즉시 포기해 버렸다. 그리고 이 단계를 자신과 독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자신이 경험한 “네 번째 단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과연 제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제게 일어난 사정은 이러합니다”[15절], “아마도 저는 제가 말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부님, 신부님은 제가 어느 정도 바르게 말하는지 어떤지 아실 겁니다”[21절]). 그리고 이 설화적인 맥을 이어가기 위해 본 장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4절부터 29절 전체를 할애했다. 성녀가 여기서 다룬 주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이다:

- 법열은 무엇이며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 하느님의 부재(不在)로 인해 야기된 고통은 무엇인가?
- 성녀 자신을 비롯해 신비가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가치 목록은 무엇인가?

(다음 호에 계속)

arrobamiento를 말한다. 성녀는 진정한 신비체험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arrobamiento, extasis, rapto와 같은 다양한 스페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는 모두 진정한 신비체험을 가리키는 ‘탈혼’ 상태를 가리킨다. 이 용어들을 ‘탈혼’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번역하는 것은 성녀의 의도와는 맞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다양한 용어로 번역하고자 시도했다. 성녀의 글에서 드러나는 arrobamiento는 ‘법열’, extasis는 ‘탈혼’, rapto는 ‘황홀’로 표현하기로 한다.

9) 여기서 말하는 ‘법열’ (法悅)은 스페인어의

* 성인의 시 *



예수의 성녀 테레사의 시와 해설

님의 아름다움 Hermosura de Dios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오, 아름다움이여 온갖
아름다움에서 뛰어나신 이어
상함 없이 아픔 주고
아픔 없이 피조물 사랑을
앗아 주시나이다.

아주 다른 두 가지 것을
이렇듯 이으시는 매듭이여
그 어이 풀리시는지 나 모르와도
이어져 힘을 주시나이다.
긋은 것은 좋은 양 떠안으라고

본디 있지 않는 것을
가없이 있음과 매 주시며
다함없이 다하시고
미운 것을 고이시며
히히공공을 키워 주시나이다.

해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
가?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맨 처음으로 접
하게 되는 부분이 하느님의 속성(屬性) 즉,
하느님은 이렇이러하신 분이심에 대해서 배
우게 된다.

그것을 배울 당시, 각자의 연령과 학력이
나 지적 수준이 다르고 가르치는 이의 교과
과정이나 방법이 차이는 나겠지만, 맨 먼저
우주만물과 인간의 창조주이신 분을 설명하
면서 대개 다 비슷하게 이런 내용으로 전개
될 것이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무
궁하시며, 광대무변하시고, 절대지존(絕對至
尊)이시며, 대자대비하신 사랑의 결정체(結

晶體)이시면서, 진선미성(眞善美聖)의 극치이
신 하느님이라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느님의 아름다움
을 찬미하며 노래하는 성녀의 이 시(詩)는,
별로 길지도 않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도 없는 것 같다. 우선 첫째 연에서 하느님
은 세상 만물 중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지극히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아닌 어떤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홀려 거기에 빠졌다가
도, 그것의 거짓된 정체를 알아보는 순간, 그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타격이나 상처를 그리
심하게 받지 않고 우리가 피조물에 대한 사
랑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노래한다. 둘째
연에서는 피조물과 창조주, 또는 하느님과
인간이라는 지극히 다른 둘 사이가 연결되는
신비로운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에 대
한 사랑으로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는 피조물
에 대한 이탈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의 뜻
대로 현재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자신의 인
간적인 조건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마지막
연에서, 사실 생각해 보면 잠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먼지 같은 존재는, 우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크옵신 하
느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있는 것이고, 인간
의 타고난 허약함과 결핍을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매 순간 충만히 채워주신다고 노래
한다.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하느님의 아름다움> 이라고 해야
하는데, 역자이신 최민순 신부님은 그냥 <님
의 아름다움> 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성녀가
하느님을 애인(愛人)처럼 인격적으로 사랑하
신 마음 상태를 강조하신 것 같다.*

* 선교 *

선교사의 사랑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사랑이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서 본다는 말
 더 더욱 거짓말이

나처럼 잠 못 든다면
 어느 꿈에 보나요.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간 세상 어디에서나 <사랑>이라는 이 말만큼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없을 터이지만, 정작 '사랑이 무엇이나?' 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푹 부러지게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위에 인용한 시(詩)는 누가 지은 것인지도 모르는 채 몇 백 년 전부터 글깨나 읽고 말 좀 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고시조(古時調)를 현대어로 옮겨 본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에 오가는 정(情)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글이나 말로 하는 사랑은 온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노래한다. <사랑>이란 말은 위와 같이 남녀 사이에 오가는 연정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외에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가족이나 친척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 친구끼리의 사랑 등이 있는데, 신앙인들 특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신도들에 대한 목자들의 사랑, 교우들끼리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대상과 범위는 한없이 넓어진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진지한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자. 물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지만,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교 내에서 최고의 신학박사라고 인정받고 있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저서인 <신학대전>에서 "사랑이란 선(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명쾌히 정의를 내렸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랑은 그 대상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라는 뜻이므로 과연 그렇게 말 할 수밖에 없겠다고 수긍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고 하였고, 또 다른 곳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웃이 곧 원수, 또는 원수는 이웃이라는 말이 된다. 세상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미워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가 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살거나 혈연으로나 지연, 업무나 조직 제도 안에서 자신과 가까운 관계 가운데 생기는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기본적인 덕(德)인 신망애 삼덕을 향주덕(向主德)이라고도 하고 대신덕(對神德)이라고 하는데 이 덕들은 우리가 완전히 실천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완전히 믿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느님께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고,

완전한 애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세상 이치로는 말도 안 되는 역설(逆說)을 멀쩡한 정신으로 의지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교사의 직분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신 어느 성인의 말씀이 늘 나를 의기소침하게 한다. 특히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난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의 국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기(氣) 좁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이웃하고 있으면서 과거 수백 년 동안 시시때때로 침략하고 노략질하였고,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우리를 압제하고, 현재까지도 우리가 잘못되기만 바라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미움이나 적대감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부담이 되어왔고, 아직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사랑이신 하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2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가르멜 회원들은 일본 가르멜 회원들과 상호교류 차원에서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며 친교를 나누는 적이 있다. 먼저 일본의 수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접대하면서, 서울에서 시작하여 경주를 거쳐 부산에 이르기까지, 며칠에 걸쳐 전국을 일주하면서 고궁을 비롯하여 여러 명승고적과 유명한 관광지와 변화한 시내 구경과 함께, 명동성당과 몇 군데 순교 성지와 가르멜 수녀원을 방문하여 수녀님들과 면담도 나누면서 일본에 비해 훨씬 역동적인 한국 교회의 여러 모습을 소개하며 보여주었다. 그들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발전하고 수준 높은 한국의 문화에 감탄하면서 좋은 추억을 갖게 해 준 우리의 배려와 환대에 진심으로 사례하면서 돌아갔다. 이듬해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그들도 우리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면서 우리를 접대하였고, 그들 역시 우리가 하였던 것과

비슷하게 일정을 짜서 오사카와 나라, 그리고 교토 등지에 흩어져 있는 명승지와 관광지를 구경시켜 주면서 고급식당에서의 식사와 가르멜 수녀원을 방문하여 수녀님들과 만나 환담을 하게 해 주었다. 그렇게 5박6일 동안 한일 양국의 가르멜 회원들은 같은 신앙과 수도적 이상을 추구하는 동지로서 정답게 형제적 친교와 우정을 나누며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 밤에 그 모임에 대한 소감과 평가를 나누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당시 양국 국민들 사이에 큰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언급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일본 수사님 중의 하나가 자기네 입장에서 차분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한 때 젊은 시절에 일본 수도원에서 몇 년 산 적이 있어 유창하게 일어를 할 줄 아는 우리 원로 신부님이 일본 말을 통역하는 말을 듣고 있던 우리 수사님 한 분이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면서 감정적인 억양과 표정을 드러내는 바람에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 버리고 말았다. 양측 사이에 잠시 동안 논쟁이 오갔지만 통역을 하던 원로 수사님이 분위기의 수습을 위해서 양쪽의 말을 통역해 주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 논쟁이 계속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 버린 후, 다음날, 예정대로 우리가 일본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배려와 친절을 베풀면서 끝까지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 환송해 주었다. 그렇지만 양국 간의 친교 모임은 그 이후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다.

전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이웃 나라끼리 많은 불화와 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만큼 국민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서로 상대국을 미워하고 무시하면서, 마치 타고난 본능처럼 마음속으로부터 저 쪽이 잘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은 없을 것이다. 일본인들은 전혀

동의할 생각이 없겠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었고, 현재에도 갖은 방법으로 우리의 성장발전과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계명에 따라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장차 선교하려하는 중국은 또 어떤가? 신(神)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철두철미한 세뇌교육을 받은 천만 명이 넘는 공산당원들의 횡포 아래 현재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소수민족 독립운동원들이 비밀수용소나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고 하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보다 200년 앞서 천주교가 전파되었던 일본에서 교회가 시작된 지 수십 년 지나 시작된 박해시대 때, 판관과 형리들은 신자들을 잡아다가 땅바닥에 펴 놓은 예수님의 성화나 십자가상을 밟고 지나가라고 하면서 그 명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골수 신자로 가려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외국인 선교사 신부 한 분을 잡아다 세워놓고 그가 보는 앞에 신자를 차례대로 끌어내어 신부에게 성화를 밟으라고 명령해서 거부하면 막 바로 휘광이가 장검을 휘둘러 신자 한 명의 목을 잘라버리게 하였다. 그 신부님이 배교와 신도들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얼마 동안의 시간도 주지 않고 판관의 명령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사제 앞에서 휘광이의 칼 아래 신도들이 하나 둘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잠시 눈을 감고 망설이다가, 어느 순간 신부님이 성화 위에 두 발을 던고 미친 듯이 밟기 시작하자 휘광이의 칼질은 멈췄지만, 이미 죽은 신도는 칠팔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신자들은 더 이상 칼로 쳐서 죽이지 않고 한꺼번에 끌어다가 바닷가에 세워놓은 십자가에 매달아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골수 신자들은 조수로 밀려오는 바닷물에 서서히 익사하여 순교하게 하였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죽은 일본의 순교자들이 이미 시성된 26위 말고도 아직 복자품에도 못 오른 이들이 수천 명이 넘는데, 그 중에는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 수십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경우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주님이 수난 당하시는 그 순간에는 자신은 그분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배반하고, 예수님과 한 패로 몰려 죽을까 봐 겁이 나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 자신이 세 번이나 한 배신을 갚기 위해 세 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하신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그 힘으로 용기를 얻어 예루살렘성전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온 유다 지방을 넘어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인 지역을 거쳐 로마까지 가서 복음 선포를 하다가, 거기서도 막상 잡혀 죽을 위협에 처하자 도성을 빠져나가 도망치는 길에 십자가를 지고 오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여쭙자 **“나는 너 대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는 말씀을 듣고 발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가서 자수하여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은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그 옛날 박해시대 때 우리나라에

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1784년 중국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이승훈(베드로)의 입교로 시작된, 성직자나 선교사의 선교활동의 도움이 없이 자생적으로 태어난 한국 천주교회는 이벽, 권철신, 권일신, 정약종, 정약용 등의 유학자들의 입교 세례로 진리를 추구하던 양반 선비사회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여, 얼마 안가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 없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된다.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교회 창립의 주축이 되었던 이들 선비들은 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도하기 위해 교회법에 어긋나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나이와 학식에 따라 스스로 사제도 되고 주교도 되는 이른바 <가성직제도>까지 만들어 신학교회를 운영하게 된다. 나중에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의 수행원이 된 신자들을 통해서 북경에 있는 주교님과 면담을 통해, 이것이 크게 잘못된 일인 줄 알고 <가성직제도>를 즉시 해체한 후, 북경의 주교님께 조선에 선교사 신부님을 보내주시기를 눈물어린 간청을 기회 있는 대로 계속하게 된다. 결국 한국 교회 신자들의 열성에 감복하여 처음으로 북경 교구에서 보낸 선교사 사제가 주문모(야고보) 신부님이다.

그는 북경을 떠나 한 달 만인 1794년 12월 24일 성탄전야에 짙짙 얼어 하얀 눈으로 덮인 압록강 근처에서 지황, 윤유일 일행을 만나 삼엄한 경계의 국경을 넘어 12일 만에 서울에 잠입하여 최인길의 집에서 한국교회 창립 10년 만에 최초의 미사를 거행하게 된다. 그 후 조심조심 신자들을 만나 한문을 아는 선비들과는 필담으로 고백성사도 주고 매일 미사를 하면서, 한국말을 배우며 예비자들에게 성세도 주면서 5년 정도 사목 활동을 하다가, 배교자 한영익의 밀고로 쫓기는 신세가 된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당시 교회의 여신도 회장이던 강완숙 골룸바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집으로 신부님을 피신시켜 지내다가 며칠 못가서 그마저 탄로 나게 된다. 이때 지황, 윤유일이 신부님이 피신하는 데 시간을 벌

어드리기 위해 주문모 신부 행세를 하면서 그 집에 있는 동안 신부님은 급히 여장을 꾸려 일단 중국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나 북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렇게 며칠 가다가 밤이 되어 황해도 황주 근처의 외딴집의 헛간에 몰래 숨어들어 지친 몸을 누여 잠을 청하려다가 최근 며칠 동안의 일을 잠시 돌아보며 생각하는 중에, 자신을 찾아내기 위해 관리와 형리들이 무죄한 신도들을 얼마나 닦달하여 괴롭힐지 생각해 보니 차라리 자신이 자수하는 것이 신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다음날 가까운 고을인 황주 관헌을 찾아가 자신의 정체를 사실대로 밝히게 된다. 그리하여 곧장 서울로 압송 되어 의금부에서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 입국 후 지난 5년 동안의 활동과 자세한 행적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보름 쯤 지나 5월 31일 서울 한강변의 모래벌인 새남터에서 참수 치명하게 된다. 이날을 전후하여 이승훈, 정약종, 최필공, 홍낙민, 지황, 윤유일, 강완숙 등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몇몇 궁녀들까지 포함하여 300명이 넘는 신도들이 각지에서 순교하는데 이것이 1801년을 피로 물들인 신유박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리아, 이라크 주변의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내륙의 나이지리아 등지의 이슬람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수많은 신·구교 신자들이 주변 사람들과 다른 신앙 때문에 갖은 형태의 악랄한 고문과 순교를 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고통당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선교사나 성직자 또는 수도자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의연히 죽어가는 이도 있겠지만, 고통 받는 자신의 양떼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그들을 위한 사랑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이도 있을지 모른다.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닌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마음의 샘

화창한 봄날, 아버지의 탄식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담배 때문이다. 새해가 되면 아버지는 금연을 결심하고 선언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아버지는 어린 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큰 죄를 지었다면서 참회하며 용서 받으려고 준비할 것이다. 아버지의 재도전은 언제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폐 수술을 받은 이력도 있어 수년간 금연에 성공한 경험도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흡연을 반복하고 있다. 동창회 분위기 때문이라든가, 사업상 거래처와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거절하기 힘들다 하면서 진지한 변명을 하지만 스스로 위로하기엔 거리가 있다. 당신은 나름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합리적 이유와 싸우고 있는 듯 했지만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매서운 비난을 해대는 가족들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아버지가 측은할 때도 있다.

아버지에 대한 나의 연민은 중독에 관한 지식을 알고 난 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스스로 인식하며 지속하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지속하는 것의 차이가 있겠지만 잘못된 습관에서 기인된 대부분의 성인병처럼 우리에게도 중단하거나 제어하기 힘든 해로운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통스런 나의 몸 상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운동을 결심한다든지, 마음의 수양을 위해 근거 없는 비난이나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만족스러운 성공은 없다. 아버지의 결심과 나의 결심, 결국 무너지는 우리들의 결심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과연 결심에도 질(質)적 차이가 있을까? 손가락을 자르며 선언하는 결심 앞에서 어떻게 그 진정성을 의심하겠는가? 아픔을 간직한 각오나 결심은 언제나 순수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패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놀라운 점은 그 결심의 반복과 지속성이다. 언제부터인지 아버지가 결심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진심어린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으며, 오히려 옳이 같은 그 행동에 감동하기도 한다. 당신의 결심은 실패의 두려움 위에 있으며 투쟁의 각오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진정 아버지의 결심은 생생한 의식의 산물이다. 아픔과 유해성, 그리고 건전한 가치에 대한 식별을 전제하고 있기에 선(善)을 향해 생동하는 삶의 가시적 징표이다. 오늘 나는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 간다. 비난을 멈추고 진리의 걸음을 배우기 위한 내밀한 결심을 회복하려고 한다.

이제, 다시 곧게 일어서는 나의 목과 무릎이 비밀스런 결심을 일으키는 그대 사랑의 표시가 되면 좋겠다.

“이 길을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굳게 다져진 일대 결심이라고, 말하자면 생명수에 닿을 때까지는 무엇이 오든 (...) 모두 상관하지 말고 줄곧 나아갈 결심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덕 21,2)

* 공동체 이야기 *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

수원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공동체

- 나자로 마을로 초대 ; 사랑의 토대

나자로 마을, 한센병 환우들이 사는 이곳에서 낯선 재속회의 첫날, 그리고 나의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자로 성당 안을 꼭 채웠던 공동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봄은 찬란하게 눈부신 벚꽃으로, 여름은 싱싱하고 푸른 나무들로, 가을에는 붉은 색과 노란 색 단풍으로, 또 겨울에는 누구나 사색에 잠기게 하는 고즈넉함으로 자연을 통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가슴 벅차게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조를 짜서 나자로 회원들의 식당봉사를 하고, 선종 봉사부를 구성하여 직접 나자로 회원들의 장례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들은 다소 특별할 수 있는 봉사시간을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마음을 내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 다. 다소 자기 중심적이고 때로는 지나치게 내향적이었던 내가 언제부터 이 공동체를 “우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애정 어린 연대감의 시작은 공동체



2000년 나자로 회원(앞줄)과 일반회원들의 종신 서약식

를 구성하는 환우 회원들과의 특별한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이 공동체는 환우들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환우들과 함께 산길의 여정을 시작한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 나자로 식당봉사 때, 그분들의 수저와 컵 등을 닦아 정리할 때, 놓아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해 난감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환우들은 각자 쓰는 수저, 포크가 달라서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으면 많이 불편해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환우들과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수녀님, 이리 오세요” 했다가 민망했던 일도 생각납니다. 수녀님께서 환우들과 함께 식사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자로 환우 회원들의 회원 카드를 정리하다 보면 생년월일이 없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태어난 날을 모른다는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일생이 슬펐을까 하는 생각에 종일 마음이 졸지 않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 시절을 함께 보낸 회원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추억 한 두개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이섬으로 야유회를 갔을 때 수건돌리기 놀이하던 일, 도시락을 함께

하며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웃으며 하루를 보냈던 일, 환우 회원의 입관식 때 화관을 씌워드린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셨던 일, 유일하게 고향선산으로 떠나가신 회원의 경우에는 자식도 아닌 회원이 서럽게 울면서 모시고 갔던 장면들은 이 공동체의 연대감이 내밀한 사랑에 뿌리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냉혹한 현실 안에서 소외된 삶이었

겠지만 선종하실 때에는 공동체에서 마음을 다해 정성껏 보내드렸습니다. 사랑은 차별화된 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실천하면서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¹⁰⁾

그 시절 공동체는 양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 있던 시기였고, 피양성자들은 양성시간을 위해 한 달을 사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가르멜 성인들에 빠져 한없이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금방 성녀라도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입회동기들을 떠올리게 되는 시절입니다. 자신을 알기에는 부족했던 저에게는 세상이 온통 가르멜로 보이고, 오랫동안 재속회원으로 살아오신 회원들의 따뜻한 사랑과 진심어린 충고는 성모님, 엄마 모습으로 느껴져서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나 편안해졌습니다. 회원 분들의 눈빛 하나하나와 대화할 때마다 느껴지는 섬세한 소통과 보살핌은 저도 모르게 저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야외 월모임과 은경축 행사를 위한 장기자랑 연습하던 정자와 면담을 위해 기다리던 야외 벤치, 그리고 점심도시락을 먹기 위해 돛자리를 들고 서성이던 잔디밭 등이 생각나며, 그 곳에는 항상 가족처럼 느껴지는 공동체 회원 분들의 사랑이 함께 했습니다. 월모임 강의를 위해 전국에서 오셨던 신부님들과 방문 때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천진암 수녀님들, 그리고 회원들이 좋은 가르멜인으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하며 공동체 운영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협조신부님들의 노고와 희생은 나와 우리를 가르멜 꽃으로 점점 물들게 했습니다. 그때에는 구역모임은 각자 회원 집에서 돌아가면서 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었고, 금방 가까워질 수 있는 친교가 내향적인 저에게

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새로 구역이 바뀌면 주소를 손에 들고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구역모임을 위해 만나고 준비하는 시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안도와 깊은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 이별, 광야로 초대 : 침묵과 기도 안에서 만나는 돌봄의 신비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들이 나이가 들고, 단독회원들이 늘어나면서 봉사가 어려워졌고, 현실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되어 나자로 마을을 떠나 대리구청에서 1년 정도 월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시 교구에서의 월모임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는 현재 안산 도미니코 수도원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회원의 배려로 양성과 회의를 할 수 있는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였지만, 한 때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어서 교구내의 본당에서 셋방살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참사였던 회원은 월모임 장소나, 사무실을 옮기는 상황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많아서 '이사의 회기' 였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외형적으로 분명 힘들고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열악한 환경에서 고단한 여정을 함께 걸어온 듯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좀 더 깊은 침묵과 기도만을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것은 마치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이 초대하신 광야나 사막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하는데, 그 때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은총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험난한 여건들 속에서 주님 돌봄의 손길과 함께 걸어가는 느낌입니다. 현재 자리 잡은 안산 도미니코 수도원은 공동체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비좁지만, 도미니코회 신부님들의 배려과 친절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월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0) 창립 시 84명이었던 나자로 회원은 현재 10명이며, 이 중에 "나자로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은 4명이다.



2019년 창립 20주년 (안산 도미니코 수도원 뒤뜰)

가르멜 재속회의 모임이 도미니코 수도원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도미니코 수도자들이 가르멜 재속회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늦게 돌아가는 지하방 보일러를 우리를 위해 미리 틀어놓아 주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방을 쓰는 날이면 편하게 사용하라고 자리를 피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건물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쳤던 터라 조용하고 절제된 수도원 분위기는 축축한 위로가 되어 정신과 마음을 회복하기에 충분합니다. 가끔 다른 공동체에서 재속회관을 건립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언제나 우리 회관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하고 불편한 환경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커 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공동체의 가난이 십자가의 은총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후에 2013년 당시 관구장님과 협조신부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협소한 장소가 불편해 보이셨는지 공동체 분리를 원하셨고, 그해 11월 수원 성 요셉 공동체와 분리되며 49명 회원들과 헤어졌습니다.¹¹⁾ 정든 회원들과 헤어져서 많이 서운했지만 어느새 우리 재속회원들은 하느

님의 뜻에 맡기는 것에 익숙해있었고, 성숙한 모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오두막의 하룻밤 같은 것...”

우리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우리가 있을 곳을 가르쳐 주시는 듯합니다. 2019년 5월, 공동체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하룻밤 같이 느껴지는 시절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은 알알이 주님을 향하는 열정과 피땀으로 이어진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철부지 저를 받아주시고 성숙하게 키워주시는 공동체, 해가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우리”와 함께 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함이 더해갑니다. 말과 언어로 가르치기보다는 기도와 삶으로 보여주시는 공동체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배워왔고,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 많던 회원들이 지금은 출석인원 50명 남짓 됩니다. 코로나19로 월모임과 구역모임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낯선 상황도 우리 공동체가 걸어온 사랑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재속회관도 없이 월모임을 하던 시간에는 공간이

11) 이에 앞선 2006년, 회원수 증가로 수원, 분당, 용인지역을 하나로 한 인천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회가 안양, 군포, 광명, 과천, 안산, 의왕지역을 연결한 수원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회로부터 분리되었다.

우리를 어렵게 하였고, 지금은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만나고 희망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불안 속에서 서로를 믿고 있고, 그리워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공동체를 위해 사사로움을 버리는 순간을 분별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오늘도 이 여정을 통해 공동체의 행복과, 존재이유를 찾아갑니다.

“나는 끊임없이 허무 가장자리에서 있기에, 나는 매순간 실존을 받아들여야 한다.”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는 스스로 봉헌하고 동의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확신을 확인합니다. 공동체는 나와 서로 연결하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상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무한한 천국과도 같은 곳 아닐까요. 침묵과 기도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때로는 홀로, 그러나 동시에 나와 다른 이웃과 함께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준 우리 공동체는 1999년 5월에 창립된 “수원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재속 가르멜회”¹²⁾입니다.*

12) 성 라자로 마을에서 초대원장이시며, 재속회원이셨던 고 이경재 신부님으로부터 시작된 정착촌 회원들의 라자로 재속회와 서울 재속회의 수원교구 소속 회원들이 통합된 공동체가 만들어져 ‘수원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재속 가르멜회’가 창립되었고, 그 월모임을 성 라자로 마을에서 하였습니다. 그 당시 총 237명이었던 회원수는 현재 단독회원포함 83명입니다.

(39쪽에서)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인 듯싶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찾는 젊은이들, 하루 종일 추운 데서 몸으로 일하는 젊은이, 비신자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 젊은이, 어떻게 살아야할지 갈피를 못 잡는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힘을 얻고 웃으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진지하게 가르멜 성소를 생각하다가 입회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올해 2월 15일 두 명의 젊은이들이 광주 수도원으로 입회했지요.

재속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우리 수도회를 원하는 청년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찾아갈 수 있고, 성소모임을 할 수 있고,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사제가 되기까지, 그리고 사제가 되어서도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삶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수도자, 하느님을 전하는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삶에 방황하고 지쳐서 휴식이 필요한 영혼들이 하느님 안에서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상관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광주 수도원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이상의 젊은 남자 형제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토-일요일에 준비하였습니다. 수사님들과 함께 기도, 운동, 산책을 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자연 안에서 놀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소담당수사: 010-2140-7414)

모든 재속회원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가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 성소 *

모든 재속회원분들께

김종선(예수의 즈카르야) 신부/ 가르멜 관구본부 수도원(성소담당)

평화를 빕니다. 저는 수도회에서 성소담당 소임을 맡고 있는 수사입니다. 성소담당자로서 회보를 통해 모든 재속회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성소담당 역할을 하면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제 사는데만 급급했다면, 종신서원을 하고 서품을 받고 재속회 사목을 다니면서부터 회원분들의 환대에 어쩔 바를 몰라했고, ‘정말로 회원분들 덕분에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성소담당을 하면서 회원분들의 도움이 있기에 성소사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작년 초, 성소담당 소임을 맡으면서 처음에는 ‘누가 연락이나 할까?’ ‘성소를 찾는 청년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소자들을 찾고 만나야하는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소임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소를 찾는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각기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듯이 성소자들, 젊은이들 역시도 고유한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낯설고 ‘이 사람이 수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성소모임을 하면서 함께 지내다보면 겹겹이 쌓여있는 마음 한 켠에서 비쳐오는 하느님의 빛, 그분이 심어주신 성소의 싹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빛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수도회로 이끌어주었겠지요. 본인도 저도 뭐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말 신비롭습니다. 성소의 여정은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성소의 여정 역시도 마찬가지로 싶습니다. 현재진행형이기에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부르심.

저는 청년들에게 연락이 오면 ‘우선 만나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포항, 대전 등 여러 곳들을 다녔지요. 그리고 만나면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게 되고, 간식도 사먹게 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는 말이 있듯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마음의 경계들도 조금씩 허물어져 갑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고급지고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푸짐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푸짐한 음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젊은이와 칼국수를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성소를 찾는 청년이었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저녁시간에만 만날 수 있어서 함께 식사를 했지요. 그래서 수도원 앞 칼국수 집에 갔습니다. 아직 확실한 성소자는 아니었지만, 청년이 푸짐하게 먹고서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칼국수와 파전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청년의 삶을 듣게 되었지요. 자취를 하고 있고, 혼자 살기 때문에 보통은 끼니를 거르거나 과자,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운다는 이야기, 그리고 남에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삶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정말 잘했다. 따뜻하게 배 채우고 가서 오늘 밤 행복하게 잘 자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웃으면서 행복하게 돌아갔지요. (38쪽으로)



윤원조(예수 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노숙자 예수’

티모시 슈말츠(Timothy schmalz)의 청동 등신상의 작품 제목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두툽한 담요 한 장을 두른 채 공원 벤치에 누워있는 노숙자를 형상화했다. 작가가 의도했던 안했던 바뀌는 계절이 배경이 되는 이 설치작품은 눈이 내리면, 비가 오면, 벚꽃이 피는 계절이라면, 태풍이 몰아치는 밤이면, 모두들 쾌적한 잠자리에 미련을 둔 채 일어나기를 미루고 있는 새벽 어둠이라면... 벤치에 꼼짝없이 누워 있는 그 모습으로, 더 강렬하고 애잔하게 그의 고단함과 소외감이 청동의 묵직함만큼이나 우리의 가슴을 내려앉게 할 것 같다.

마태오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제작된, 동일 작가의 100여 점 제각각 다른 청동상이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When I was hungry and thirsty’

‘When I was a stranger’

‘When I was sick’

작가의 다른 작품 제목이다. 작품의 공통점은 모두 담요를 전신에 두른 채 드러난 손등과 발등에 못에 꿰뚫린 상처가 깊다는 것이다.

“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종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마태오 25:44)

바티칸 근처에는, 추운 겨울 노숙 여인이 얼어 죽은 자리에 교황님이 축복한 이 청동상이 설치되어 있다. 전 세계 곳곳에 이 청동상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한다.

신앙 안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종교 예술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감상자 개개인의 해석 안에서 그들 신앙의 폭을 넓혀 주거나 깊이를 더해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

미처 덮이지 못한 채 담요 밖으로 드러난 발과 부족한 천은 어떤 사실을 상징으로 남겨 놓은 작가의 마음이고 그의 의도이다. 이것은 그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기도의 형상화이자 묵상의 결과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마주 할 때 그에 거는 기본적인 기대감을 지니고 있다. 대상을 통해 드러나는 스스로의 위치와 신분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대상을 통제하고 ‘판단하려드는’ 본능처럼 되어버린 익숙한 삶의 방식 때문이다. 노숙인들과 노숙인 예수님을 동일시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무작정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만큼이나 많을지 모른다.

“히브리어 어원으로 ‘거룩함’은 ‘분리’ ‘신성함’ ‘순수’ 등의 의미로, 하느님을 지칭하는 이 개념은 하느님의 본질, 신성, 그리고 절대적인 초월성을 표현한다.” 는 어느 교수 신부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결국 ‘구원자’ 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을 뿐이지 예수님 당신의 고유성 안에서 ‘노숙인’ 자체의 상태에는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이 청동상 설치가 거부되었던 결정적인 단어는 ‘신성 모독’이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자 오늘

날 교회를 있게 한 결정적인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 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의미로 '사랑의 완성' 의 드러난 표지이자 당신 초월성의 실체임과 동시에, 인간에게 죽음을 당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비어 있는 자의 '실체', 그 입증은 아닐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전에 나자렛 사람 예수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채 허망하게 죽음을 당하셨을 뿐이다. 더할 수 없이 비참한 신분이 되어 십자가 아픈 길을 걷는 그에게 '베로니카' 성녀는 흘러내리는 피로 눈조차 못 뜨시는 그의 얼굴을 닦아 드렸고, 모두들 실망과 두려움으로 흩어진 자리에 요한 성인은 끝까지 십자가 아래 그 자리를 지키셨다. 당신 무덤 주변을 못 떠나는 막달레나 성녀는 새벽길에 천사를 만났고 부활하신 당신을 보았다.

그들은 조건 없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불이익을 모른 채, '현재'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사랑' 을 베풀었다. 그들의 사랑은 측은지심에서, 사람에 대한 예의에서, 그에 대한 경외심에서였다.

“ '너희가 나를 못으로 찌르려는 것을 어떻게 그리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느냐? 정녕 네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나는 네 이웃의 형상 안에 있기 때문이다.' ...

이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평가할 때마다 여러분은 저 낮은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성녀 마리아)

온갖 세속적 기준을 댄 판단이 우리 이웃 사랑의 조건이다. 곤란에 처한 내 이웃의 이러저러한 상황은 그들 고유의 몫이자 예수님과의 관계일 뿐 우리 선행에 앞선 조건은 될 수 없다. 노숙인 예수님의 신분으로 공원 벤치에 지금 누워 계신 저 분은 목수일로 지쳐 허름한 복장 그대로 동네 어디쯤에 몸을 쉬시는 당신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목마름에 잠

깐 어디쯤 누워 계시는 당신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 누워 계시는 분은 발등의 상처로 미루어 보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하느님이신, '신' 이신 당신이 그림자보다 희미한 지상 한편에 당신의 누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사람에게서 사랑 받지 못하시는, 사람에게서 외면 받으시는' 당신의 또 다른 모습, 상처 받고 가시 찢린 '성심' 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

노숙인의 맨발에서 보이지 않는 뚫린 상처를 발견하라는 작가의 요구일 수도 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 모두의 자아일 수도 있겠노라고 하면 억지일까?

16세기 플랑드르의 종교 화가이자 풍속 화가인 '피터 브뤼겔' 의 작품 중에는 '베들레헴의 인구조사' 가 있다.

16세기 북유럽의 추운 겨울을 배경으로 화면에는 썰매 타는 아이들부터 집 짓는 사람, 호적 등록차 몰려 든 사람들, 돼지 잡는 사람들까지 거의 100여 명이 등장한다. 수많은 군상 중에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와 앞장서서 톱을 어깨에 멘 채 마리아가 타고 있는 나귀를 몰고 가는 요셉을 겨우 찾을 수 있다. 춥고 척박한 16세기 중엽의 시골 마을에 성모님과 성 요셉을 등장 시킨 화가의 의도와 21세기에 노숙인 예수님의 청동상을 우리 곁에 설치 해 놓은 작가의 의도가 맞물린다.

우리 일상 안에는 천사가, 상처 입은 하느님이, 출산이 임박해 고통스러운 마리아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 이웃 안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매 순간 또 다른 의미의 '하느님 현존' 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모든 영원성을 갖고 계십니다. 1분 동안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뻔뻔스럽게도 판단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성녀 마리아)*

* 회원의 글 *

사무치는 아픔, 사무치는 사랑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어둠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첫 금요일, 고단하여 나도 몰래 잠이 들었다. 아침의 일이 아주 오래된 일 같기도 영혼은 비몽사몽 그렇게 또 한 주가 흘러갔다. 어렴풋이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자리에 누운 채 창 너머 하늘을 올려다본다.

새로운 날을 주신 하느님께

+ **"Benedicamus Domino!"**, **"Deo Gratias!"**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기도를 드린다. 이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어머니께 제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어 오늘 하루를 악한 죄에서 지켜 주시라고 청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금요일 오전 열 시, 성당 마당에는 큰 차일 아래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장례 미사에 참례하고 있다. 간혹 유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띄는 그중에 나도 보랏빛 옷에 그나마 짙은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다. 우리 본당 평일 미사 중 유일한 낮 미사인 금요일은 장례미사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요즘은 장례미사가 잦다. 마치 예복을 갖추지 못해 쫓겨나는 성경 말씀처럼 나의 옷차림에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 다음부터 금요일은 까만 옷을 입고 와야 할까 보다. 문득, 흰옷을 즐겨 입는 나의 장례미사에는 흰옷을 입고 오겠다던 동갑내기 벗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검은 옷보다 하늘길 떠나는 날에 상복도 하얗기 좋다는 나의 속마음을 알아채듯 이심전심이 따스하다.

저녁 식탁에서 막내가 "엄마, 부모가 죽으면 고아라고 하고, 남편이 죽으면 있잖아?" 질문을 한다. "과부!" 나의 답에 "응,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부르는 말이 없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 남편이 죽으면 산에 묻고 돌아오지만,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단다." 아이가 뜬금없이 하는 말은 아니리라. 최근 들어 직장 동료나 그 가족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단다. 첫돌이 되기 전 품에 안겨 이민을 떠나 온 아기가 자라 곧잘 고사성어를 섞어 모국어를 사용하면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냐고 놀라움이 앞선다.

얼마 전부터 큰아이가 몸이 별로 좋지 않다더니 어지러워 쓰러졌다는 기별에 이어 집 근처 병원에서는 뇌에 문제가 있다고 빨리 종합병원으로 가라 해서 차가 오길 기다린단다. 한시가 급하다는데 너희가 어서 병원엘 가보라고 아이들을 재촉을 한다. 앰블런스를 타고 가야 빨리 봐준다는 말에 수긍이 가지만, 어찌 그저 기다리고만 있으랴. 아기라도 봐주러 가야지 않나,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사위에게 전화하니 혹여 코로나에 노출됐을지도 모르니 안 된다며 화상통화를 연결한다. 루카스는 평소엔 "그랜 마~" 애교스럽게 연거푸 부르며 까불던 녀석이 인사도 안 한다. 생전 처음 엄마가 밤에 없어서 놀랐는지 그냥 마룻바닥에 엎어져 있는 애처로운 모습에 절로 눈물이 난다.

보호자도 동행할 수 없는 황망한 상황에 본인은 얼마나 불안할지 홀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을 하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 흐른

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드리라는 말에 “나도 매일 로사리오 기도하고 있었어. 걱정 안 해.” 원래부터 스텔라는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의 딸이다. 어스름한 첫새벽에 앰블런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강남성모병원에서 역삼동 성당까지 테헤란로를 달리던 어느 사순절의 금요일. 아직도 पास하던 큰언니의 맨발을 주무르던 온갖 기억들이 이어진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길고 긴 어둠의 시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며 자비하심을 간구 드린다.

새해부터 탈이 난 심신의 나약함은 마치 영혼의 현이 평~ 끊어진 느낌 그대로 이만 끝내주시라는 한없는 구령의 심연 속으로 침몰하는 심정이다.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멀리 가까이 당신의 사제와 벗을 통하여 पास한 손길을 펼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안배하심이 신비롭다. 아픔을 먼저 겪은 이의 속 깊은 위로와 기도는 따끈하게 마련해 준 레몬차의 향기처럼 생기를 돋운다. 다행히 코로나도 비껴가고 조금씩 차도를 보이는 딸아이를 보며 차차 회복되리라는 믿음과 바람을 담아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팬데믹 이후 꼭 일 년 만에 만난 아기는 뒷마당에 피어난 꽃을 찾아다니며 향기를 맡는 시늉으로 예쁜 짓을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수난 기약 다다르니 산으로 피해 가시어, 근심하고 답답하사 피땀이 땅을 적시네.’ 여고 시절 처음으로 배운 성가를 나직이 부르며, 슬픔을 겪은 자만이 슬픔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음을 다시 깨닫는다. 십자가의 길에 모자 상봉의 사무치는 그 아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조금은 알 것 같은 Via Dolorosa! 상처투성이의 선혈 낭자한 아드님의 주검을 받아 안으신 어머니의 애통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길 없는 그 아픔을. 참척의 고통을 겪으신 성모님께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아픈 이들을 봉헌 드린다. 어머니 품에 안아 주시어 사랑을 꼭 안고 펼쳐주신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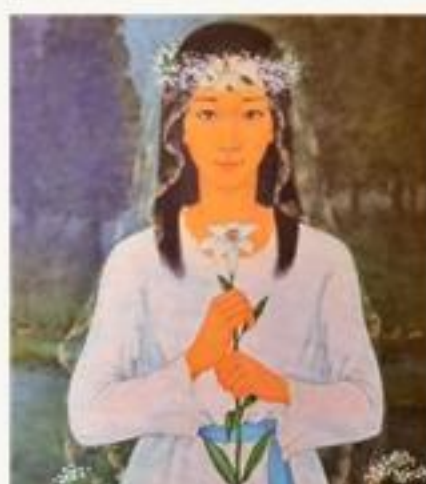
어둠은 걷히고 몽실한 구름이 가득한 청명한 아침, 성모님의 아픔을 위로해 드리고픈 마음을 담아 우리 어머니들의 모정을 기억하며 햇살 바른 마당에 은방울꽃 뿌리를 묻는다. 성모님께서 흘리신 눈물방울이 떨어진 곳에서 피어났다는 은방울꽃, 머지않아 사무치는 아픔이 사무치는 사랑으로 피어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목숨 바쳐 사랑하신 가없는 사랑에 취해 길고 긴 하룻길을 걸어 온 금요일, 이미 밤은 깊어 고요하다. 이제 사흘날이 지나면 부활하신님을 만나리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제자들처럼.

전능하신 천주여, 무덤에서 편히 쉬신 아드님과 같이 우리도 편히 쉬게 되었으니, 내일도 잠에서 깨어나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새 생활을 시작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어릴 적 운동장, 피구 시합이 한창이다. 의기양양, 자신감 충만! 하지만 공만 날아오면 혼비백산이 됐던 나. 겁이 많아 줄행랑을 치다 등짝이나 옆구리를 맞으면 밤새 앓기 일쑤였다. 탕탕한 공이 날아왔다. 상대편 적수가 던진 것이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눈을 감아버린 순간, 나도 모르게 공을 받아 안았다. 대박!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환호성이 우렁찼다. '어머 재가 웬일이야. 박지현 파이팅!.' 이어진 다급한 목소리, "공을 던져. 빨리 던지라고." 하지만 난, 신주단지처럼 공을 껴안고 공격할 적수를 찾다가 그만, 타임아웃! 시간을 놓쳐버렸다. 화려한 찬사가 야유로 바뀐 것은 당연한 이치. 엄청 창피했던 기억,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공을 던지는 것에 인색하다.

내가 다 책임지고 잘하려는 성향 때문에 기도해줄 사람이 있으면 가슴으로 껴안았다.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 영혼들을 다 책임지고 챙겨야만 나 자신이나 하느님께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다. 어려서부터 공을 받을 줄만 알았지 던지거나 넘기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장녀인데다 착한 역할에 매이다 보니 감정이든 느낌이든 거르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 들였다.

이를 심리적 용어로, '내사' 또는 '감정을 먹는 아이' 라고 한다. 부모님이 힘들게 사시니까 나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어린 마음에도 상의하거나 의탁하기보다 내가 혼자 감당하고 해결해왔던 거다. 얼핏 보기엔 독립적이고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다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애 어른이 되기 십상이다.

만일, 주님의 신부가 이러한 성향을 가졌다면 신랑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가르멜에 와서 내 영적 목표점은 하느님과 의 일치 안에서 영혼구원에 기여하는 삶. 기도든 사도직이든 그 꿈 안에서 이행해왔다. 그러다보니 영적으로 책임져야 할 이들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 내 남편과 자식, 부모 형제, 주변의 힘든 병자와 임종자들, 가정의 위기를 맞은 이웃들,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 그리고 교회의 각종 지향들.

끝이 없는 기도, 챙겨야 할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요구된다. 신랑을 만나러 갈 때도 영혼들을 다 데리고 가려니, 침묵할 겨를도 없이, 그들의 해방을 위해 미주알고주알이 과하다. 신랑은 늘, "그대는 언제쯤 나와 단둘이 우정을 나눌 수 있겠소?" 라고 종용하고, 신부는, "뭘 말이어라. 저는 매일 당신을 만나기 위해, 순교하듯 시간을 내어 뛰어오는구먼요. 못 올 뻔했는데 온 게 어디래요. 고마워하실 줄 알았는데, 겁나 서운하네요." 라며 툭툭댄다.

“고맙고말고. 나는 다만 그대와 호젓이 둘만의 사랑을 나누길 바라오. 그대를 독차지하고 싶단 말이오.”

“오, 주님. 그럼 제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은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할까요?”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신 성모님께 봉헌하려무나. 그럼 성모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며, ‘목마르다! 영혼이 고프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발 한 영혼이라도 내게 올려다오.’ 라고 구걸하는 내게 올려 주실 거다. 내가 아버지께 드려야 할 기쁨의 제사를 왜 네 가슴에 껴안고 힘들어하냐 말이다.”

문득, 집안의 고통을 고하며 체력이 소진될 정도로 기도생활 했던 그때, 성모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났다. “애야, 네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크다 한들 게세마니에서 피 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내 아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 있겠니? 그러니 약한 몸으로 힘주지 말고, 네가 받아 안은 것들을 나와 예수님께 넘겨주렴. 공을 던지란 말이다.”

그 순간의 해방감은 지금 되뇌어도 생생하다.

‘게세마니 동산에서 비시던 그분이 어떤 결심을 가지시고 당신의 의지를 몽땅 바치면서 기도하셨는가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시련과 고통과 모욕과 박해를 거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뜻이 그분 안에 얼마나 완전히 채워졌는가를 깊이 우러러 보십시오.’ (완덕의 길 32,6)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습성이 무의식에 깊

이 각인돼서, 받은 공을 붙잡고 힘겨워하던 악습을 비춰주신 거다. 누가 공을 던지면 무턱대고 받지 말고 내 공인지 네 공인지 하느님의 공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 던지기의 진수가 있잖은가. 제베대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황당한 치맛바람에 예수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받아치셨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덜석, 공을 받지 않고 하느님께 넘기셨던 거다. 겸손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가르멜인들에게 공은, 영혼을 의미한다. 교회의 딸로서 세상을 살리고 영혼 구원에 협력하며, 데레사 사모님처럼 교회의 심장이 되어주는 역할이다. 그러나 수많은 공(영혼)을 내 것인 양 감당하고 책임지려다 지레 지쳐서 영적인 힘마저 소진시키게 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구렁 속에 빠지듯이 말이다. 나도 모르게 받아 안은 공들을, 다시 어딘가로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임상사목(CPE) 교육에서 배웠다. 나 아닌 타인에게 공을 던지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하느님께로 던진다는 것은 의탁과 내맡김의 덕목을 의미한다.

소화 데레사 성녀처럼, 내가 받아 안을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도 영혼 구원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은밀한 궁실에 홀로 들어가 신랑이신 그분과 단둘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겠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 역시 많은 노숙자를 사랑하고 돌봤지만, 기도할 때만 큼은 오직 홀로 주님께만 집중했다.

그들을 전부 가슴에 껴안고 갔더라면, 주님과 깊은 교감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것 같다. “나는 그 많은 영혼들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다만 오직 한 사람, 십자가 위, 주님만 사랑할 뿐이래요.” 그 힘에서 그토록 큰 사랑이 비추되어 절로 나눠졌음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은을 포기해야 한다.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힘겹게 얻은 금마저도 버려야 한다. 7궁방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 다이아몬드, 삼위일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하느님 아닌 하느님의 것, 온갖 피조물과 은총들, 즉 금과 은마저도 버릴 때가 온다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흠모의 눈빛으로 바라본 십자가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단다.

목마르다!

“얘들아 목마르다. 나에게 쥐야할 영혼들을 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느냐. 어서 나오.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내 죽었거늘,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한단 말이나?”

1981년도에 개봉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영화가 있다. 가난한 난장이가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절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쇠로 만든 공을 달을 향해 던지는 장면이 등장한다. 가장 이면서도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었던 무력함을 공에 담아 던진 듯하다. 세상의 부조리와 소외된 이들의 아픔,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긴 공! 그는 신의 존재를 믿었던 걸까?

우리에게 어떤 공이든 절대 놓치지 않고 다 받아주실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자, 이제 던져보자. 내 손 안에 쥔 공, 내 것이라 착각했던 남의 공, 내 가슴에 껴안고 버거워했던 공 아니던가.

‘에잇! 이 공 받으세요. 여기 또 있어요. 오호! 신난다.’

공을 받으신 성모님, “고맙다. 얘들아. 이것이야말로 참 봉헌이란다.” 라고 하시며 당신 희생을 엮어 주님께 던지신다. 공을 받으신 예수님, “고맙소, 어머니.” 하시며 당신 살과 피의 공로를 엮어 성부께 바쳐 드리신다. 내 작은 공이 두 분을 거치는 동안, 몇 배로 뱅튀기가 돼서 하느님께로 상달된 것이다.

지상의 수많은 공(영혼, 문제, 고통, 영광 등)을 받으신 하느님, 아주 흡족해 하시며,

“허허허. 이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녀들이 이리도 많더라 말이나. 어우, 내 새끼들, 나를 깔축없이 믿어주니 어찌 외면할꼬. 오냐오냐! 얼른 선물 포장해서 초고속 택배, 즉 완전한 위탁의 성녀 소화 데레사가 타고 올라온 엘리베이터에 실어서 내려 보내주마. 기대하렴.”

소통의 지름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밤하늘 은하수가 되어 반짝거린다. 언젠가 별뚱별이 되어 응답으로 쏟아지겠지. 별잔치 속에서 춤추는 그분의 목소리, 신부를 부르는 신랑의 휘파람 소리다.

“목마르다. 내게 영혼을 나오.”

“공마르다. 내게 공을 던져다오.”

“그리고 훨훨 가벼이 그대만 오시게나.”

(다음 호에 계속)

* 독자후기 *

추모글을 읽고

정현숙(믿음의 꽃 클라우디아)/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한 달에 한 번 멀리 고국의 향기 품고 날아오는 회보가 얼마나 반가운지요. 뽀뽀한 첫 장 표지를 꼭꼭 눌러 넘기며 한껏 기분 좋아집니다. 어쩔 회보는 제가 가르멜 공동체의 가족임을 말해주는 도구이기 에 소중한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2월 회보에선 먼저 하늘 옷을 곱게 갈아입으신 분들을 추모하는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읽으며 이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도 있구나! 우리 가르멜의 남은 사람들 기억 속에 귀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하느님 품으로 안기신 그분들은 어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다~ 싶었습니다.

이제야 수련 2기를 맞이하여 가르멜 여정의 시작 단계에 있는 저는, 아직은 가르멜 공동체 안에서의 풋내기입니다. 청원기, 수련 1기의 몇 개월은 매달 수도원에 갈 수 있음이 즐겁고 설렘이었지요. 바라보는 시선의 끝이 같은 분들을 만나고 같은 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으로 마냥 좋았던, 이런 것이 하느님을 통해 만나게 되는 공동체의 따뜻함이란 것이구나! 살~짝 맛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대한 파악이 채 되기도 전에 covid-19 상황을 맞이하며 길 잃은 방랑자가 된 듯했지요. 한 곳을 향해야 하는 마음이 갈라지고 흐릿해져 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는 채 '하라니 하지요.' 라는 마음으로 그저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얼마 전 이별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

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어 그저 스치며 모습을 보였던 자매님. 그분을 위한 위령기도 모임을 갖고 모두들 그분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나누시는 말씀... 그 그리움과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 시간을 함께하며, 그저 안타까운 서늘한 기운이 아닌 가족 사이에 느낄 수 있는 애뜻한 온기를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냥 공동체가 아니구나! 피붙이가 아니어도 가족일 수 있구나.' 라는 작은 깨달음과 동시에 나도 이런 멋진 공동체의 가족인 것인가? 내심 든든했습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리며 나도 모르게 애타는 마음은 사랑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겠지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르멜 공동체에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더 머물러 있게 되는 요즘 사순시기입니다. 죽음, 사랑하는 이와 이별이 더 이상 슬픔에만 묶여 있을 일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가슴 아픈 이별의 글을 읽으며 슬픔의 냉기가 아닌 따스함이 흘러나와 내 마음에 닿을 수 있음을 새로이 배웁니다. 예수님과의 이별이 그러했듯 죽음과 이별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 안고 그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함 또한 마음속에 넣어둡니다.

오늘도 클라우디아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바로 '라뿌니' 라 대답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청해봅니다. *

2021년 6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범위: 제24장 해설: 읊는 것이 기도 하는 것일까?**

성녀는 본 장에서 구송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면 정신기도를 시작하기 힘들어하거나 아예 그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송기도에 대해 말해 보기로 하자.

이 주제는 우리의 관심을 상당히 끌어당긴다.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는 성녀의 입장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구송기도와 정신기도를 병행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함.”

실제로 정신 기도 없는 구송기도는 있을 수 없으며,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드리는 기도들은 기도의 단계에 있어 바탕이 될 뿐 아니라 기도를 배우는 데 최상의 디딤판이 된다.

1. 문제 제기

“발음만 제대로 하면서 읊으면 그만인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면 족한지...” 즉 여기서 성녀는 입으로 읊는 것이 기도가 되려면 단지 말마디를 제대로 읊는 것만으로 족한지에 대해 묻고 있다.

“습관”과 “단지 말마디들을 잘 발음함으로써” 기계적으로 구절을 읊기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과 더불어 나누는 우정”의 표현이자 “영과 진리 안에서” 이뤄지는 “내적 사실”로서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지난날 우리는 그저 “말마디만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크게 소리 내어 읊으면서 그것을 갖고 기도문과 전례 예식, 심지어 시편 기도 또는 성사들을 놀라우리만치

잘 이행했다고, 또 그것을 잘된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우리의 우매함을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성녀는 이 점을 들어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주여, 당신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입으로 기도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가지지 말게 하소서” (완,바 22, 1). “따님들이여, 하느님과 이야기하면서 딴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바 22, 8). 성녀는 본 장에서도 이 점을 여러 번 힘주어 말했다.

이 문제가 내포한 두 번째 복잡함은 보다 실제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그것은 기도하는 데 있어 “자신을 거뒀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주제에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 “지성을 묶어 둘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녀는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입으로 기도문을 낭송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인 셈이다. 그들은 지성 또는 마음과 더불어 내적인 말로 드리는 기도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녀는 자신의 기도 교육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고자 했다.

-순수 정신 기도를 함에 있어 실제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 “정신기도 또는 관상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무서워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심 많은 일부 신학자들이 퍼뜨리는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한 내적 기도를 함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절대적인 무능력 상태 또는 정신적인 고갈 상태가 있을 수 있다(4~5절).

-마지막으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보

면, 하느님께선 모든 이를 같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성녀는 소수의 가르멜 수녀 그룹에 이런 내적 무능력(그것이 일시적이건 아니건 간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합류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했다.

이에 성녀는 그들 모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길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2. 어떻게 입으로 기도할까?

첫 번째 수칙: 성녀는 근본적인 수칙을 제시했다. 즉 결코 말마디를 읊는 기도만으로는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기계적인 낭송,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기도 형식만을 채우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제대로 된 기도는 그것과는 다르다.

두 번째 수칙: 성녀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기도의 대상인 신적 타자(神的他者), 즉 하느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의식해야 한다.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빌고 있는 말들이 어느 분에게 드리고 있느냐는 생각을 힘써 가지는 것입니다” (6절).

세 번째 수칙: “홀로(a solas).” 구송 기도에서도 그리스도 또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종교적 차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 성녀는 “홀로”라는 표현을 일차적으로는 세속적인 생각과 일에 대한 배제로 이해했다. 그분을 향한 관심은 구송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해야 한다. “입으로 잘 읊는 기도라도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알아들어야 한다” (6절).

네 번째 수칙: 기도하는 당사자는 이 모든 것을… 성심껏 노력해야 한다. 구송기도 역시 일련의 자기교육(自己敎育)이라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책임, 항구함, 내적 훈련이 수반된다.

3. 하지만 예외는 없는 것일까?

이런 수칙에도 예외를 두었다. 특히 말마디들을 내면화하고 “하느님과 함께 있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교육시키는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기도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네 번째 수칙이 그러하다.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 즉 내적으로 위축된 상황에만 해당된다.

성녀는 이미 이를 경험한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그와 관련된 다음 네 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1) 기분이 나쁘고 우울증(슬픔, 맥이 빠진 상태)이 크게 몰아친다, 2) 불안과 무미건조함이 지배한다, 3) 해야 할 일이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다, 4) 일종의 내적 흥분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즉 안정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 이로 인해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 상태를 겪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을 할 수 없는 고통”에 수반되는 것들이다.

성녀는 이런 경우 “정신이 없는 이로 하여금 억지로 정신을 차리거나 그 상태를 견뎌 내지 말도록” 했고, “더 기도하지 말고 병자로서 자기 영혼을 쉬게 하면서 다른 덕행에 힘쓰도록” (5절) 권고했다.

성녀는 이런 일련의 무능력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 자체가 우리가 지닌 비참함에서 하느님을 향해 올라가는 무언의 외침이자 기도임을 잘 알았다. 성녀는 이런 순탄치 못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정을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初心), 즉 **일대결심**을 견지하라는 수칙을 반복해서 말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심지어 세상이 무너지든 기도를 놓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가르멜 총서 3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에서 발췌17

재속회 소식

가르멜회보 원고를 기다립니다

형식과 종류: 자유(제한없음)

분량: A4용지 1쪽 이상

보낼곳: 관구재속가르멜회 ocds@hanmail.net

※ 공동체 소식은 사진과 함께 글로 엮은 1쪽 분량 이상 환영/ 종신서약이나 은경축 사진은 본인들 얼굴만 나온 것으로... /시는 원고 적체/묵상글, 구역모임 나눔, 추모글, 편지, 일기, 독후감, 기타 등등 다양한 글을 환영합니다.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서계선 십자가의 안나
 - 선종일: 2021년 2월 17일(향년 86세)
 - 대구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 원종윤 성면의 미리암
 - 선종일: 2021년 3월 11일(향년 68세)
 - 수원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공동체
- * 이인수 겸손의 마리아
 - 선종일: 2021년 3월 9일(향년 71세)
 - 부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수도회 소식

성시간: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30분~ 4시 30분
- 영성센터 지하성당(오후 3시부터 개방)
- 영성강좌, 성시간, 고해성사, 미사

날짜	지도
4월 24일	전주원 하상 바오로 신부
5월 29일	황태현 디다코 신부
6월 26일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7월 31일	조성훈 다미아노 신부

첫토요신심미사

- 가르멜재속회관(코로나 시기)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10시부터 고해성사)
- * 4월 첫주가 성주간이므로 4월 10일로 이동

가르멜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시간	대상
서울 청년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광주 가르멜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 문의: 010-2140-7414 (성소담당 수사)

가르멜 영성 특강

-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 시간: 강연 13:30/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 강사 및 주제

날짜	4월 9일(금)
강사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주제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영성 안에서의 기도
날짜	5월 14일
강사	전주원 하상 바오로 신부 (가르멜 수도회 수련장)
주제	예수님의 이야기, 데레사의 이야기

- *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4149-1853
(신청양식: 영성특강/이름/세례명/연락처/본당)

-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참여를 위하여, 오시는 분들에게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특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경수 가밀로 수사님 출국

이경수 가밀로 수사님이 3월 10일, 가르멜 영성을 공부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수사님께서 스페인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허선형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수사님 부제서품

3월 13일 오후 4시 30분(로마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테레시아눔에서 허선형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수사님의 부제서품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이 부제로 서품되신 수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 영성피정

일 시: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1시 ~ 5시

장 소: 서울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참가비: 1만원 (강의록 배부)

참가신청 및 문의: 010-6305-5088

(참석자 성명 및 세례명: 문자 메시지)

* 강의, 성체현시와 기도(고해성사), 미사.

4 월	일시	4월 17일(토) 오후 1시 ~ 5시
	주제	소화 데레사와 성모님
	강사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5 월	일시	5월 15일(토) 오후 1시 ~ 5시
	주제	소화 데레사와 아기 예수
	강사	조운용 엘리야 신부

성녀 소화 데레사 신심미사

서	매월 둘째 월요일 오전 10시30분 (기도) / 11시 (미사)
울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인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0시30분 (기도) / 11시 (미사)
천	인천 가르멜 수도원
대	매월 첫째 화요일 오전 10시30분 (기도) / 11시 (미사)
구	대구 재속가르멜 회관

참가신청 및 문의: 010-6305-5088

* 성녀 소화 데레사 영성과 신심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신자, 수도자, 재속회원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성녀 소화 데레사 영성피정(36 주제) 및 성녀 소화 데레사 신심미사는 조운용 엘리야, 권영상 클레멘스, 신호준 마리오 신부가 돌아가면서 지도합니다.



허선형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수사님 부제서품식(성인호칭 기도)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미사지향은 문자로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중국선교 후원회: 우리 1005-502-535564

가르멜수도회 후원회: 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홈페이지: <http://www.carmel.kr> / 유튜브: 가르멜수도회/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 관구



어느덧 번뇌는 사랑을 만나
믿음과 희망의 씨앗이 되었나보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
찬 겨울 밀어낸 봄바람이 꽃피울 그 향기와 열매가
처음처럼 이제와 영원할 것을.

- Jean J de C -